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담 기능과 전승원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순 희

2014년 8월

제주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담 기능과 전승원리

지도교수 현 승 환

강 순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강순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국문초록>

제주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담 기능과 전승원리

강순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현 승 환

이 연구의 목적은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담의 기능과 전승 원리를 밝히는데 있다. 그동안 부친탐색담은 서사 문학의 한 원형으로서 나라와 가문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이를 계승하는 측면의 의미 연구에 주목하였다. 신화는 유래와 근원을 알려주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시조(始祖), 시원(始原)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적인 삶에서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신화집단은 부친탐색을 시도하게 된다.

제주도 무속 신화인 본풀이 세 편에 ‘부친탐색담’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절대 신격을 노래하는 <천지왕본풀이>, 무조신의 내력을 구송하는 <초공본풀이>, 주화관장신의 삶을 말하는 <이공본풀이>가 그것이다. 부친 탐색을 중심으로 한 본풀이 서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네 개의 공통 신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 ‘결합의 신화소’, ‘부친탐색 신화소’, ‘증여와 답례 신화소’, ‘신직 해석 신화소’가 그것이다.

‘결합의 신화소’는 아버지의 출현 양상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천지왕은 하늘의 존재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러기에 결합 또한 일방적이다. 주자대선생은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존재로서 권위 또한 혼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사라도령과 원강암이는 구덕혼사로 결합을 이룬다. 그의 권위는 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친탐색의 신화소’는 탐색 과정에 나타나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서사적 특징

이 다르게 나타난다. 대별왕 소별왕의 아버지 탐색은 정신적 결핍 때문이다. 그들은 박씨를 타고 하늘에 올라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그 과정은 고통 없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초공 삼형제의 아버지 탐색은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다. 이는 육체적 결핍으로 중대한 문제를 유발하였다. 외할아버지를 거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어머니의 삶이 아들에게 투영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고통의 양상을 추출할 수 있다. 할락궁이의 탐색 동기는 주체적 자각이다. 열다섯이 되자 아버지 부재로 인한 사회적 결핍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부친 탐색에 나선다. 서천꽃밭에 이르는 과정은 고난이 반복되는 구조이며, 합혈과 열레빗 맞추기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이로써 아버지의 신격에 따라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강도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음은 ‘증여와 답례의 신화소’로서 신직의 중복 여부에 따라 증여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천지왕은 하늘과 다른 세상인 이승과 저승을 증여하므로 신직 중복이 없기에 ‘순수증여’라 말할 수 있다. 주자대선생은 삼형제에게 무법(巫法)을 증여한다. 아버지는 이계의 사제자이며, 아들은 인간세상의 사제자가 된다. 이에 신직 중복 양상은 혼합적이므로 ‘증여’라 할 수 있다. 사라도령은 주화(呪花)를 증여한다. 사라도령과 할락궁이는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신직이 중복된다. 또한 통과례를 거친 자에게만 증여되는 조건적 양상이 강하게 드러나기에 ‘교환’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은 ‘신직 해석 신화소’로서 뉘토스적인 이야기 요소들을 로고스적인 논리적 법칙으로 묶어주는 부분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이승법 저승법의 시원, <초공본풀이>에서는 무법의 시원, <이공본풀이>에서는 수레빨망악심꽃의 시원으로 해석되며 종합 마무리 되고 있다.

이러한 부친탐색담이 신화 서사에서 중요한 구조로서 작용하고 있다면 제의의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절대 신격을 이양하는 것이며, <초공본풀이>의 무법 능력의 이양, <이공본풀이>의 신성 주화의 이양 과정을 보여준다.

이로써 신앙민은 제의 과정에서 ‘부친탐색담’이 일으키는 의미 기능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전승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승원리가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관계의 강제성’이다. 부자관계는 선택 사항이 아닌 강제적

인 결합이다. 이에 신앙민은 본풀이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둘째, ‘인식의 자각성’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구체적 표상 및 그 관계를 둘러싼 은유 작용을 생각하다보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함을 깨닫게 된다. 이때 인식 작용이 확장되며 그 심층적 의미를 자각하게 된다. 셋째, ‘상호 호혜적 통합성’이다. 신과 무당과 신앙민은 부자관계에서 출발하여 증여와 답례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신은 신앙민의 발원을 들어줌으로써 증여를 행하고, 신앙민은 깊은 신앙심으로 이에 답례하게 된다. 이처럼 제의와 본풀이가 내외적인 면에서 상호 호혜적 원리에 따라 수용 전승되고 있기에 통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본풀이에 드러난 ‘부친탐색담’이 신격의 위계를 정립하고, 권위 이양을 정당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제의 속에서의 기능도 함께 고구하였다. 이에 제주의 본풀이가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신화로 전승 되는 원리를 찾을 수 있었던 점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방법	6
II. 부친탐색담의 구조와 의미	10
1. 전승양상	10
2. 결합의 신화소	17
3. 부친탐색 신화소	20
4. 증여와 답례 신화소	25
5. 신직 해석 신화소	30
III. 부친탐색담의 기능	34
1. 절대 신격의 승계	34
2. 무법 능력의 이양	37
3. 신성 주화(呪花)의 이양	41
IV. 부친탐색담의 전승 원리	44
1. 관계의 강제성	45
2. 인식의 자각성(自覺性)	48
3. 상호 호혜적 통합성	53
V. 결론	57
참고문헌	62
ABSTRACT	67

I. 서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 무속 신화인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담의 구조적 의미와 기능을 밝히는 것이다. 우선 신화 서사에서 부친탐색담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친탐색담이 제의 속에서는 어떻게 소통되며 신앙민(信仰民)에게 전승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탐색이란 없는 것을 찾아 나서는 행위이다. ‘부친탐색담’이란 부재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과 결과의 서사로 이루어진다. 넓은 의미에서 탐색담¹⁾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되면서 ‘심부담(尋父談)’이라 명명하기도 한다.²⁾ 여기서는 탐색의 원인과 과정 및 결과의 구성 요소를 추출하고 각각의 의미를 규명하게 될 것이므로 ‘부친탐색담’이라 이름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부친탐색담을 연구하는 이유는 본풀이에 나타난 의미가 제의 과정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리라는 추론 때문이다. 부친탐색담은 무속 신화와 건국 신화에서 표면화 되어 있다. 무속 신화인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의 아버지 찾기는 인세(人世)를 차지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중요한 전제로 작용하며, 고구려 건국 신화에서는 유리왕의 혈통과 능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보다 세밀하게 나타나면서 고구려 건국과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 완료하는 신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부친탐색담은 신화 서사에서 빠대가 될 만한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제의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전제해 볼 수 있다. 신화는 제의 현장에서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시지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신화 밖 제의 참여자들의 욕구와 의식을 수용하며 서사에 반영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화 속 의미와 제의의 기

-
- 1) 국립민속박물관(2012),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편 2권에 나타난 ‘탐색담’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는 탐색주지(探索主旨)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 유형’이라고 나와 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책 748쪽 참조.
 - 2) 이수자는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성장하여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서사구조를 가진 이야기들을 아버지 찾기담, 부친탐색담, 혹은 심부담(尋父談)이라 하며, 선학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바 있는데, 특히 이들은 심부담(尋父談)으로 말해져 온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수자(2009),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친탐색 원형」, 『구비문학연구』 제28집, 구비문학회, p.206.

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연구하면 신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 일반신 본풀이 중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를 그 대상으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세 본풀이는 제주의 큰 곳 열두거리 제차에서 상위 신격의 본을 푸는 앞 세 번의 제차에서 주송(呪誦), 전승되고 있어 신화의 의미 기능과 제의에서의 기능을 밝히는데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이때 구송자인 무당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일정한 틀을 가지고 메시지를 수용하고 전달하게 되는데 부친탐색담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의미 파악에 치중되어 온 ‘부친탐색담’에 대한 연구를 기능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적극적인 시도라고 본다. 신화와 제의는 성스러운 언어와 성스러운 행위로서 그 둘은 분리된 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중추적인 두 요인이다. 그러므로 ‘부친탐색담’ 기능 연구는 부친탐색담의 부분적인 의미를 넘어 제의 속에서 메시지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함으로써 신화와 제의의 상보적 관계를 규명하는데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본풀이’가 살아있는 신화로서 현재에도 유의미하게 신앙민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이유를 해명하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2. 선행연구 검토

‘부친탐색담’은 가부장제 전통의 사회적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인류는 가부장제 전통을 유지하며 가장(家長)으로서 아버지의 지위를 확고히 하여왔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가문의 전통을 부계계통으로 잇고 있으며, 자녀의 성(姓)도 아버지를 따르고 있다.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던 전통사회에서 아버지와 자녀는 불가분의 관계로 천합(天合)이라 표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부재는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결핍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결핍은 자녀의 사회적 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 찾기는 뿌리를 찾는 과정이며, 곧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적 성공을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양상은 문학에도 반영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로써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서사 원형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고, 특히 세속적인 가족사의 문제를 표층 구조로 하여 드러나게 된다. 가족 집단은 태고 이래로 삶의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단위이다. 생혼사(生婚死)의 반복적 흐름을 삶이라고 본다면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존재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신화 서사에도 반영되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화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변모하는 동안 아버지의 의미 또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신화시대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천공적(天空的) 존재로서 누구에게나 섬김의 대상이 되는 하늘로 생각되었다면 역사시대의 아버지는 가문의 명맥을 이어나가며 부와 권위를 대대손손 증여하는 존재로 크게 부각되었을 것이다. 효를 백행(百行)의 근본으로 삼았던 조선 사회에서는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것은 효의 실천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심부담(尋父談)’의 양상을 밝히고 그것이 서사 문학의 한 원형을 형성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심부담(尋父談)’ 모티프의 사적 맥락을 추적(주종연)³⁾하거나, ‘심부담(尋父談)’의 전형적인 형태를 찾기 위한 연구(장덕순)⁴⁾, 또는 탐색 모티프의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한 연구(노영근)⁵⁾, 부친탐색 원형의 문학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이수자)⁶⁾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심부담(尋父談)’이 지닌 현실적 성격에 주목하여 ‘심부담(尋父談)’이 아버지라는 현실적 체험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거나(정하영)⁷⁾, 무속신화에 반영된 가족의 일상적 삶을 중심으로 ‘심부담(尋父談)’의 맥락을 탐구(최원오)⁸⁾하기 위한 연구도 있다. 또한 아버지 탐색과는 반대로 부친살해 모티프에 담긴 창조적 주체의 입사적 성격을 규명(김영희)⁹⁾하는 연구도 있다.

우선 주종연(1981)은 『삼국사기』 「동명왕편」과 「유리왕편」에서 출발하여 이규보

3) 주종연(1981), 「한국문학의 한 원형에 대한 고찰」, 『어문학』 1, 국민대, pp.35-51.

4) 장덕순(1986), 「심부담고」,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pp.220-225.

5) 노영근(2000), 「이야기문학에 나타난 가족탐색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19-187.

6) 이수자(2009),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친탐색 원형」, 『구비문학연구』 제28집, 구비문학회, pp.205-240.

7) 정하영(2010), 「심부담의 연원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고전연구』 제2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pp.5-30.

8) 최원오(2005), 「무속신화, 그 속에 반영된 가족의 일상적 삶과 의미」, 『국문학연구』 제13호, 국문학회, pp.8-32.

9) 김영희(2012), 「한국 구전서사 속 부친살해 모티프의 역방향 변용 탐색」, 『고전문학연구』 제41집, 고전문학연구학회, pp.322-373.

의 오언시 「동명왕편」과 『청구야담』의 「청취우약상득자」 그리고 이효석의 「메밀꽃필무렵」에서 ‘심부담(尋父談)’ 모티프를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근대 단편 소설 형성은 일본을 중개자로 한 서구문학의 영향이 지대한 것이라는 일면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자체의 내재적이고 자생적인 모티프를 연원으로 생성된 것임을 입증하려 하였다. 즉, 이들 작품에 나타난 ‘심부담(尋父談)’ 모티프가 우리 단편 소설에 흐르는 최고(最古)의 원형 중 하나임을 밝히려 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기-서사시-설화-단편소설에 전해지는 사적 맥락을 추적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심부담 원형이 발전적 단계를 거쳐 전승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 발전의 요소와 동력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단순히 ‘심부담(尋父談)’ 모티프가 서술 내용에 들어있음을 확인하며 그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¹⁰⁾ 고 하였다.

노영근(2000)은 ‘이야기 문학에 나타난 가족 탐색 연구’를 통하여 탐색 모티프의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한 시도를 거시적 관점에서 진행하였다. 가족을 구성하는 父-母-子의 복합적 관계를 토대로 탐색의 대상에 따라 남편탐색 모티프, 아내탐색 모티프, 친부탐색 모티프로 나누어 고구(考究)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편탐색은 신화와 민담에서 나타나며, 아내탐색은 민담과 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친탐색화소가 신화, 민담, 소설 모두에서 찾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친탐색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점은 흥미롭다. 또한 친부탐색담에 나타나는 탐색은 입사식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문 중심 사상의 반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¹¹⁾ 이처럼 주제별 각 편의 탐색 화소는 적당하게 추출되었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점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이수자(2009)는 구비문학 자료에 나타난 부친탐색 원형에 주목하여 문학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논한 바 있다. 무속신화 중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 포함)>, <초공본풀이>, <제석본풀이>, <이공본풀이>를 자료로 검토하고 있다. 문헌신화 중 <동명왕 신화>, <고려 왕건 신화>를 그 자료로 하여 부친탐색의 의미를 찾고 있다. 또한 민담의 문헌자료로는 「청취우약상득자」, 구비전승자료로는 「저녁에 심어서 아침에 따 먹는 오이」와 「성을 찾은 아이」를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중 무속 신화에 나타난 ‘심부담(尋父談)’을 여러 편의 사례로 고구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되며 <베포도업침>은 우리 나라 최

10) 주종연, 위의 논문, pp.35-51.

11) 노영근, 위의 논문, pp.119-187.

초의 부친탐색담이었다고 거론하고 있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인식했던 대우주적 신화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면서 최초의 ‘심부담(尋父談)’은 웅장한 한 편의 대우주적 서사시였다¹²⁾고 한 점은 흥미롭다. 하지만 구비문학의 부친탐색담을 우리 민족의 풍부한 신화적 상상력에 바탕하고 있었던 것이라 확대해석한 경향이 있으며, 현실적인 가족관계의 이합집산과 신화집단의 이상과 소망이 반영되는 측면을 소홀히 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정하영(2010)은 ‘심부담(尋父談)’이 아버지라는 현실적 체험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주몽시대의 금와왕이 계부(繼父)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신화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버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을 드러내는 현실적 반영이 신화서사에 나타나고 있음을 고구하였다. 나아가 유리왕이 아버지 주몽을 찾기 위한 탐색 과정은 그 구체성과 단계성으로 보아 역사시대로 진입한 이후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에 나타난 ‘심부담(尋父談)’의 다양한 수용과 변용은 아버지 찾기 화소가 우리 사회에서 흥미성과 교훈성을 동시에 갖춘 소재로서 많이 선택될 수 있는 중요 화소였음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소재 측면의 논의에 머문 아쉬움이 있으며 우리 서사 문학의 본질과 특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심층적 탐색의 필요성을 과제로 남기기도 하였다.¹³⁾

그 외에도 최원오(2005)는 무속신화에 반영된 가족의 일상적 삶을 중심으로 맺어지고 편입되는 양상을 살피고 있다. 이때 가족 간의 오해로 인해 버려지는 모티프로 인하여 갈등이 유발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심부담(尋父談)’의 맥락을 논의하고 있다.¹⁴⁾ 김영희(2012)는 부친살해 모티프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창조적 주체의 입사적 성격을 규명하여 아버지 탐색과는 다른 방향의 해석 틀을 제공하고 있다.¹⁵⁾

이처럼 구비문학과 문헌설화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나 그것은 주로 소재 측면의 논의였으며, 표층에 드러난 ‘심부담(尋父談)’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엮어나가는데 그쳤다. 또한 ‘심부담(尋父談)’ 형성의 시원을 <천지왕본풀이>계 창세 신화에서 찾으며 천부지모의 대우주적 세계관과 우리 민족의 신화적 상상력의 원대함을 피력하고 있지만 이때 왜 아버지 찾기 화소가 신화에 두

12) 이수자, 위의 논문, pp.205-240.

13) 정하영, 위의 논문, pp.5-30.

14) 최원오, 위의 논문, pp.8-32.

15) 김영희, 위의 논문, pp.322-373.

렸한 서사로서 표면화되고 구조화되며 전승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유는 해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재적 측면을 벗어나 ‘부친탐색화소’의 구조적 의미와 기능을 구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더불어 제의 속에서도 일정한 기능을 하면서 중심축으로 전승되고 있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제주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의 구조와 의미를 밝히고 제의에서의 전승 원리를 규명하는 것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제주 무속 신화 중 세 편의 본풀이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의 서사 구조 분석을 통한 공통 신화소¹⁶⁾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활용할 자료는 현용준의 『제주도 신화』를 기본 텍스트로 정하고자 한다.¹⁷⁾ 현용준은 제주도 굿의 진행 순서를 그대로 녹음 채록하고 정밀한 주석을 달아 해설한 제주도 무속지의 결정판이라 할 만한¹⁸⁾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을 출간하였는데¹⁹⁾, 그 1차 자료 수집 후 일반 독자를 위하여 표준어와 방언을 곁들인 절충적 방식을 사용하여 『제주도 신화』를 세상에 내어놓은 바²⁰⁾ 있다.

제의 현장에서 구송되는 본풀이 1차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더욱 바람

16)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편 2권에 ‘신화소’에 대한 정의는 ‘신화의 기본적인 최소 구성 단위’라고 나와 있다. 집필자 오세정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신화소(神話素)의 개념은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가 사용하면서 보편화되었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레비스트로스는, 언어의 기본 요소인 음소, 형태소와 같이 신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를 신화소로 상정했다. 이것은 보통 신화 속에서 이야기되는 중요한 관계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가 그의 아버지를 죽이다.”와 같은 문장이 신화소이다. 신화소는 단순히 신화 줄거리의 일부를 짧게 요약한 것이 아니라, 신화의 의미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계들의 복합체를 표현하는 문장들이다.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인 것은 전체 신화의 다른 신화소들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들이 그 신화의 의미를 드러낸다. 신화소의 개념을 엄격하게 사용하지 않고 다만 신화적 성격을 지닌 화소(話素)나 소재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화는 다른 이야기 갈래와 달리 그 내용이 주로 창조나 기원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 창조, 천지개벽, 신성한 존재의 출현, 신이한 행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신화소라고 칭하기도 한다.” 위의 책 230쪽 참조.

17) 현용준(1996), 『제주도신화』 개정판, 서문당.

18) 장주근(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19) 현용준(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개정판, 각.

20) 현용준의 『제주도신화』는 1976년 서문당에서 출간되었고,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은 1980년 신구문화사에서 출간되었다.

직하겠으나 화소 분석을 기반으로 한 논의 전개이므로 서사 구조의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²¹⁾ 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엮어 놓은 이 책을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주 무속 신화 중 세 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첫째, ‘부친탐색화소’가 뚜렷하게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 무속의 상위 신격에 해당하는 앞 제차(祭次)에 불리며 ‘부친탐색화소’의 특성이 중첩,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아버지가 천상적 존재, <초공본풀이>에서는 천상과 지상을 잇는 중간계에 사는 존재, <이공본풀이>에서는 현실적 존재이면서도 서천꽃밭이라는 비현실계로 이동한 존재로 그려져 그 위계성을 짐작하게 된다. 스티스 톰슨(Stith Thompson)은 하나의 설화가 전승력을 갖기 위해서는 비상하고도 주목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화소(motif)라고 이야기하였다.²²⁾ 그런데 이 연구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 편의 본풀이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에는 ‘부친탐색화소’가 가장 중요하게 기능하면서 신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아 그 전체를 ‘부친탐색담’이라 명명하였다. 이에 그 맥락에 따라 서사 원리를 추출하게 될 것이다.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신화 구조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시간과 공간, 자연의 사물이나 인간의 역사 또한 단순한 어떤 원초적인 것들에게 말을 건네며 소통하는 순간 인간은 종교적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체험한 종교와 신화의 세계는 상징으로서만 표현 가능하다고 하였다. 언어가 아닌 상징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언어만큼 분명한 문법 체계를 갖추지 못하겠지만, 상징도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표현 양식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어느 정도 해석학적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 하였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상징의 원리를 밝히면서 우주 자연과 인간은 하나의 동일화 원리로 연결

21) 『제주도신화』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나타난 세 편 본풀이의 서사적 차이점을 분석한 바, <천지왕본풀이>에서 아버지를 찾기 위하여 소별왕 대별왕이 하늘에 올랐다. 이때 『제주도신화』에서는 천지왕이 반가이 맞았다고 하였으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는 더 이상 천지왕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초공본풀이>에서는 큰 서사적 차이점은 없었으며, 방언의 해설을 통한 고유명사 사용이 두드러진 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제주도신화』에서는 사라도령,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는 원강도령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제주도신화』에서는 제인장자 집 작은 딸을 죽여 묻어두었고,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는 그 대목이 빠져 있었다. 이들은 부친탐색담에 큰 영향을 주는 서사의 축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자료 『제주도신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2) 스티스 톰슨, 윤승준, 최광식 공역(1992), 『설화학 원론』, 계명문화사, pp.508-509.

되어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조각난 존재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넓은 구조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 상징은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생각하게 해 준다. 원시인은 우주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고 세계를 향해 열려있다고 느낀다. 상징의 우주적 가치는 주관적 상황에서 벗어나 개인적 체험의 객관성을 인식시켜준다고 하였다.²³⁾ 이를 바탕으로 세 편의 본풀이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에는 부친탐색화소가 어떠한 종교 상징의 원리로 의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파악하게 될 것이다.

신화의 내용은 비합리적이며 비현실적인 의미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승자들은 인간 세상에서 실현될 수 없거나 인간의 인식 범주 속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신화를 사실로 인식하고, 진실로 수용하며 공동체의 집단 의식 속에 각인시킨다.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하나는 수용자가 비합리와 비현실을 합리와 현실로 받아들이는 인식구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신화 속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호적 장치가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원시의 신화집단은 비논리적이며 우매하다는 진화론적 관점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 신화는 현재에도 계속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신화의 표층적 의미를 넘어서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집단 의식 속에 각인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있게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층적으로는 어떠한 기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층적 의미를 넘어 심층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백과사전과 총체적 의미체계에 관한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에 따르면 하나의 기호는 연결되어 있는 많은 개념망을 통해 또 다른 기호작용을 일으킨다.²⁴⁾ 이는 비현실적인 표층의 의미가 어떻게 수용 가능한 심층의 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는 기호학적인 방법이다. 이는 신화의 의미와 기능을 규명하는데 기호학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23)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2011), 『신화와 현실』, 한길사, pp.27-33.

24) 움베르토 에코, 김광현 옮김(2000), 『기호』, 열린책들, pp.164-169.

아울러 이 글에서는 본풀이가 제의에 참여하는 신과 무당과 신앙민들의 의사소통의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음을 전제 한다. 본풀이에서 신은 무당과 신앙민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신앙민과 무당은 재발신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증여와 답례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본풀이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놓여 있는 기호작용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호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심층적 의미를 해명해 나가고자 한다.

II. 부친탐색담의 구조와 의미

부친탐색담은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아버지의 존재와 부재는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버지의 부재는 질서의 미분화를, 반대로 아버지의 존재는 힘의 실재를 뜻하였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존재로서 눈앞에 현존한 반면 아버지의 존재나 신원은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아버지는 사냥과 전쟁을 위해 자주 집을 떠나야 했고, 집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조직적 체계 속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모계제 사회가 근간을 이루던 인류의 초기 문화 단계에서는 아버지가 특정한 그 누구를 지칭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점차 농경문화를 형성하고 집단의 역할과 질서를 강조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부재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어린 시절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나, 아버지가 될 나이에 이르면 비로소 그의 존재에 대해 탐색을 시작한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 중 이러한 부친 탐색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신화소를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승양상

1-1. <천지왕본풀이>

큰 곳 열두거리를 시작하는 초감제 가운데 맨 앞에 구송되는 본풀이이다. 먼저 ‘베포도업침’이라 하여 천지개벽, 천지창조, 우주창조의 기원이 설명되고, 다음은 천지왕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천지왕본풀이>로 이어진다. 여기서는 <베포도업침>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고, 인류의 문화기원을 담고 있는 <천지왕본풀이>부분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논의하고자 한다. 제주 지역 <천지왕본풀이>는 다음과 같이 9개의 채록본이 자료로 소개된 바 있다.²⁵⁾

- ① 문창헌 본(문창헌, 『풍속무음』, 1929)
- ② 박봉춘 본(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1937)
- ③ 김두원 본(김두원, 『제주무가집』, 1963)

25) 김현선(1994),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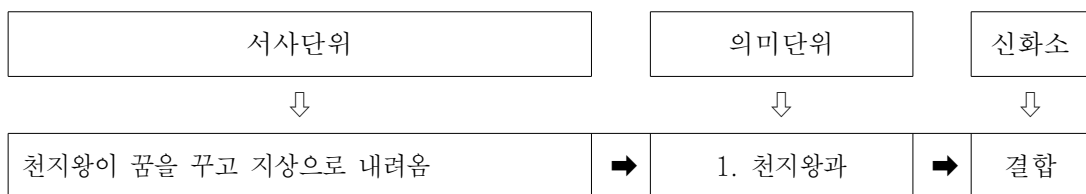
- ④ 고창학 本(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68)
- ⑤ 이무생 本(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68)
- ⑥ 고대중 本(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1973)
- ⑦ 강일생 本(임석재, 『제주도 17호』, 1974)
- ⑧ 안사인 本(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 ⑨ 정주병 本(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그런데 최근 본풀이와 의례 제차를 구연할 수 있는 큰심방들이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타계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후학들이 최근에 자료를 채록 전사하여 소개하고 있어 그 소중한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²⁶⁾ 또한 의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문화 행사로서 굿이 행해지는데 이때 자료도 함께 채록 보고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제주 본풀이가 현재에도 살아있는 생생한 신화가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공감하게 된다. 앞으로는 이 자료들도 채록본 목록에 소개되고 널리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⑩ 이중춘 本(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 1998)
- ⑪ 이용옥 本(허남춘, 『탐라문화총서』, 2009)
- ⑫ 양창보 本(허남춘, 『탐라문화총서』, 2010)
- ⑬ 고순안 本(허남춘, 『탐라문화총서』, 2013)

이본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미루어두며, 이 연구에서는 ⑨ 정주병 本(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을 기본으로 하여 일반 대중들이 읽기 쉽도록 재구성한 『제주도신화』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구조를 분석하면 5개 의미 단위로 묶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4개의 신화소를 추출할 수 있다.



26) 허남춘 외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허남춘 외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2010),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서.
 허남춘 외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2013), 『고순안 심방 본풀이』, 보고서.

수명 장자를 징치하고 총맹부인과 배필을 맺음		총맹부인의 결합		
↓		↓		↓
총맹부인이 쌍둥이를 낳음	➔	2. 대별왕 소별왕의 아버지 탐색	➔	부친 탐색
두 아들에게 증표인 박씨를 줌				
두 아들은 박씨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용상의 왼쪽 뿔이 지상으로 떨어짐	➔	3.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		
천지왕이 나타나 형제와 만남				
↓		↓		↓
이승은 대별왕이, 저승은 소별왕이 다스리게 함.	➔	4. 이승과 저승 차지 경쟁	➔	증여와 답례
소별왕이 대별왕을 속이고 이승을 차지함				
↓		↓		↓
이승이 혼란스러워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간청함	➔	5. 법과 질서 세우기	➔	신직 해석
대별왕의 도움으로 인간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움				

1-2. < 초공본풀이 >

큰 굿의 제차 가운데 초공맞이 거리에서 구송되는 본풀이다. 이 본풀이는 무조신(巫祖神)의 내력담으로서 본토에서는 <당금애기>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소개된 채록본은 다음과 같다. 또한 최근 『탐라문화총서』를 통하여 <초공본풀이> 채록본 3편이 더 소개되고 있다.

- ① 박봉춘 本(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1937)
- ② 김명윤 本(진성기, 『남국의 무가』, 1968)
- ③ 김병효 本(진성기, 『남국의 무가』, 1968)
- ④ 고대중 本(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1973)
- ⑤ 안사인 本(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 ⑥ 이중춘 本(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1998)
- ⑦ 이용옥 本(허남춘, 『탐라문화총서』, 2009)
- ⑧ 양창보 本(허남춘, 『탐라문화총서』, 2010)
- ⑨ 고순안 本(허남춘, 『탐라문화총서』, 2013)

여기에서는 ⑤ 안사인 本(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신화』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분석하였다. <초공본풀이>는 어머니 자지맹왕아기씨의 서사와 초공 삼형제의 서사가 반복되는 중첩구조를 보여주면서 진행된다. 이 연구는 부친탐색을 중심으로 한 서사에 중점을 두었기에 후반부 초공삼형제를 주인공으로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서사 단락을 구조 분석하면 <초공본풀이>는 다음의 15개 의미단위와 4개의 신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서사단위		의미단위		신화소	
↓		↓		↓	
초공의 어머니는 노가단풍 아기씨이고 아들은 분맹두, 신맹두, 삼맹두임.	➔	1. 조상내력		➔ 결합	
천하 임정국대감과 지하 집진국부인은 원불수록제를 들여 노가단풍 자지맹왕 아기씨를 낳음.	➔	2. 원불수록제와 아기씨 탄생			
두 부부는 노가단풍 아기씨가 열 다섯 살이 되는 해, 딸을 방안에 가두고 옥황상제의 명으로 하늘 로 올라감	➔	3. 부모의 출타와 가두어진 아기씨			
황금산 도단 땅 주자 선생이 주년국 땅에 와 아기 씨 원명을 잊고자 한다며 요령을 흔들어 방 자물 쇠를 열고 아기씨 머리를 세 번 쓸어 냄.	➔	4. 주자 선생과 아기씨 관계 맺기			
계집종이 주자선생의 고깔 귀 한쪽과, 장삼 자락 한쪽을 끊어 둠.					
달포가 지나가니 아기씨 육신에 변화가 일어남.					
소식을 들은 대감 부부가 지상으로 내려와 딸의 임신을 알고 집에서 쫓아 냄	➔	5. 아기씨 임신과 부모로부터 축출			
쫓겨난 아기씨와 계집종은 산에 올라 아기씨의 머 리를 거둬 올려 건지를 해줌.	➔	6. 아기씨 건지 올리기			
청수와당, 흑수와당에 도착하여 거북사자의 도움 으로 바닷길을 건넌 후, 한 쪽 귀 없는 고깔과 한 쪽 자락 없는 장삼이 걸려 있는 절 문 앞에 도착 함.	➔	7. 고행 끝 남편 상봉			
고깔 귀와 장삼 자락을 서로 맞대어 보니 계집종 이 끊어낸 것과 꼭 들어맞음.					
중은 부부살림을 할 수 없어 불도 땅에 내려감.	➔	8. 불도 땅에서 독립생활			
↓		↓			↓
불도땅에서 삼형제를 낳음	➔	9. 아기씨 출산과 양육	➔		부친 탐색

삼형제는 '아비 없는 호래자식'이라고 구박을 받고 자라지만 서당 안에서 글도 장원, 활도 장원이 되 어 감				
삼형제가 열 다섯 되는 해, 배좌수와 팔죽 파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함.	➔	10. 십 오세 과거 시험 고난사	➔	증여와 답례
삼천선비의 방해로 급제가 취소되었으나, 활쏘기 로 삼형제는 다시 과거 급제함.				
삼천 선비들의 간계로 죽은 어머니를 구하고자 주 자대선생을 찾아감.	➔	11. 아버지 상봉		
↓ ↓ ↓				
주자대선생은 천지문(天地門)이라 새겨진 천문기 구를 만들어 주고 큰아들은 초감제, 둘째 아들은 초신맞이, 작은아들은 시왕맞이 상을 받게 함.	➔	12. 무법 전수	➔	증여와 답례
불도땅 너사메너도령과 의형제를 맺고 오동나무와 말가죽으로 북과 장고를 만들어 삼천천제석공에 간혀있는 어머니를 구함.	➔	13. 어머니 살려내기		
무악기는 너사메너도령에게 지키게 하고 쇠철이 아들을 통해 요령과 천문 상잔, 칼을 만들어 삼천 선비를 죽임.	➔	14. 무법 형제 맺기와 체계 갖추기		
삼형제가 원수를 갚느라 무구를 만들고 굿하는 법 을 시작하게 됨.				
↓ ↓ ↓				
그 시절 유정승이 낳은 딸이 자라면서 수없이 죽 을 고비를 넘기던 중 육관대사에게 얻은 엽전 여 섯 푼을 찾자 몸이 좋아지고 영감을 얻음.	➔	15. 유정승 따님 아기의 무당 선생 되기	➔	신직 해석
유씨 부인이 자부장자집 딸아기의 죽음을 예감하 고 삼시왕에게 기구하여 연물과 삼명두를 받아와 처음 곳을 하여 완쾌시켜 무당으로 천하를 울림				
심방선생이 되어 굿법을 마련함.				

1-3. < 이공본풀이 >

큰 굿에서 초공맞이 다음 제차인 이공맞이에서 구연되는 본풀이다. 이 본풀이는 두 번째 제차인 불도맞이에서도 불린다. 생불할망이 하늘에서 꽃씨를 받아다 생명꽃을 피우는 대목으로부터 서천꽃밭 화소가 등장한다. 그 후 열두 거리 큰 굿에서 서천꽃밭에 꽃을 타러 가는 관련 서사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천꽃밭은 중요한 신화 소인데 이 꽃밭을 관장하는 꽃감관, 즉 '꽃부리'의 내력담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공본풀이>는 문학성이 뛰어나고 인정하는 연구자²⁷⁾들에 의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채

록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앞서 밝히었듯이 최근에도 자료로 채록되고 있다.

- ① 문창헌 本(문창헌, 『풍속무음』, 1929)
- ② 박봉춘 本(赤松智城·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1937)
- ③ 고산홍 本(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68)
- ④ 조홀대 本(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68)
- ⑤ 고대중 本(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1973)
- ⑥ 안사인 本(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 ⑦ 현금순 本(강정식 채록, 1987)
- ⑧ 이승순 本(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1998)

여기에서는 ⑥ 안사인 本(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신화』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서사 단락을 구조 분석하면 <이공본풀이>는 9개 의미 단위와 4개의 신화소로 정리된다.

서사단위	↓	의미단위	↓	신화소
김진국과 임진국이 자식이 없어 동개남절에 함께 불공드림	→	1. 사라도령과 원강암이 출생과 결혼	↓	↓
김진국은 아들을 낳고 임진국은 딸을 낳아 사돈을 맺어 구덕혼사를 지냄.				
스무 살이 가까워 갈 때 사라도령에게 서천꽃밭 꽃감관을 살러 오라는 옥황의 전갈이 내려옴.				
원강암이에게 태기가 있었으나 사라도령을 졸라 함께 서천꽃밭으로 향함.	→	2. 서천꽃밭 이동	→	결합
사라도령은 원강암이를 장자집 종으로 팔아놓고, 아들을 낳으면 ‘신산만산할락궁이’, 딸은 ‘할락대이’라 이름하라며 열레빗 반을 주고 떠남.	→	3. 장자집 고난	↓	↓
원강암이는 재인장자의 합궁 요구를 물리치고 아들을 낳음	→	4. 할락궁이 출생과 고난	↓	↓
합궁 요구를 거절한 모자는 모진 노역을 당함.				
	→		→	부친 탐색

27) 현원필(1999), 「문학교과에서의 서사무가 지도연구-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할락궁이가 열 다섯 되었을 때 아버지 간 데를 문자 열레빗 한쪽을 아들에게 넘겨 줌	➔	5. 아버지 탐색		
장자집 개를 메밀범벅으로 따돌리고 수만 리를 지나 서천꽃밭에 도착함				
서천꽃밭 입구에 맑은 연못가에서 열레빗을 맞 추어 부자지간임을 확인함.	➔	6. 아버지 상봉		
할락궁이는 어머니가 장자에게 고문을 받고 돌 아가신 것을 알게 됨.				
↓				
아버지는 서천꽃밭 꽃을 따 주며 꽃을 뿌려 윈 수를 갠고 재인장자 작은 딸은 살려두었다가 환 생꽃을 뿌려 어머니를 살리라고 이름	➔	7. 꽃을 주며 쓰임 설명	➔	증여와 답례
할락궁이는 옷음판, 싸움판, 수레떨망악심꽃을 뿌려 윈수를 갠고, 환생꽃을 뿌려 어머니를 살림				
↓				
어머니와 함께 서천꽃밭으로 가 아버지를 상봉 하고 꽃감관 자리를 물려받음	➔	9. 서천꽃밭 좌정	➔	신직 해석

위의 세 편 본풀이의 서사 단락 분석과 의미 단위 묶음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의 공통 신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즉, ‘결합의 신화소’, ‘부친탐색의 신화소’, ‘증여와 답례 신화소’, ‘신직해석의 신화소’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공통 신화소의 양상

	천지왕본풀이 신화소	초공본풀이 신화소	이공본풀이 신화소
결합의 신화소	1	1, 2, 3, 4, 5, 6, 7, 8	1, 2, 3
부친탐색의 신화소	2, 3	9, 10, 11	4, 5, 6
증여와 답례 신화소	4	12, 13, 14	7, 8
신직해석의 신화소	5	15	9

<표1>을 정리하면, <천지왕본풀이>에는 본풀이의 일반적 유형인 ‘신격해설-좌정유래의 해설-신의 직능해설’의 전형성이 드러나면서 부친탐색화소가 중심 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아버지의 신격에 의하여 이승과 저승을 증여받고 이승법과 저승법을 만들었다는 틀로 요약된다. <초공본풀이>는 어머니 자지명왕아기씨의 서사가 전반부를 이루고 있어, 신격해설부분이 확장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초공본풀이>에 어머니가 현

실의 존재로 부친탐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에 본풀이의 진실성을 높이고, 제의의 효험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확장된 것으로 보이며, 초공 삼형제의 탐색과 아버지의 증여 과정 또한 다른 두 편의 본풀이에 비해 자세하게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공본풀이>는 현실의 이상향으로 서천꽃밭을 설정하고 있는데, 좌정유래와 신의 직능 해설을 위한 서사가 균형 있게 제시되면서 현실과 신화의 삶이 동일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합의 신화소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서사 전개는 부친탐색화소를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 공통된 영역의 화소로 정리하였다. 그것은 ‘결합의 신화소’, ‘부친탐색 신화소’, ‘증여와 답례 신화소’, ‘신직 해석의 신화소’이다.

이 글에서는 결혼의 성립이 나타난 서사 단락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의 신화소’라 명명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결합의 신화소는 천부지모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때 天은 하늘이라는 공간적 의미가 강조된 경우지만, 공간적 개념 속에 담긴 심층 의미를 파악해 보면 ‘하늘같은 존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땅의 존재, 가시적인 존재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며 신이하고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세 편의 본풀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존재와 결합이 위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천지왕은 하늘의 존재, 주자대선생은 비현실의 이계적 존재, 사라도령은 땅의 현실적 존재이지만 아들이 태어나기 전 서천꽃밭이라는 제 3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존재로 표상되고 있다. 이는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대한 신앙민들의 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이 결합의 신화소는 천지왕이 천지개벽을 시작으로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다.²⁸⁾ <천지왕본풀이>는 창세신화로 분류되는 가운데 제주도 큰 곳에서 초감제 때 <베포도업침> 후에 구송된다. 초감제는 많은 신들을 함께 신청에 맞이하고 대접하는 제의이다. 이때 여러 신들이 하강할 때와 장소를 신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제차로 종합영신의례라 할 수 있다. 신화집단은 신들에게 때와 장소를 알려주는 것을 ‘날과 국 섬김’이라고 명명하는데 시공간을 간단히 설명하지 않고, 시공이 마련된 시원부터 주송하기 시작한다. 이 설명이 바로 <베포도업침>이다. 이 때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28) 현용준은 『제주도신화』, 11쪽에서 천지왕본풀이를 개벽신화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천지개벽이란 제목을 달고 그 옆에 (천지왕본풀이)라고 쓰고 있다.

말하게 된다. <베포도업침>은 천지혼합, 천지개벽, 만물창조 등의 내력을 담고 있으며, 뒤 이어 나오는 <천지왕본풀이>는 인간 세상에 해와 달이 두 개씩 있어 더위와 추위로 곤란해지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천지왕의 고민이 나온다. 천지왕은 꿈에 해와 달을 하나씩 만드는 꿈을 꾸고 총맹부인과 합궁하고자 지상으로 내려온다. 여기에서 결합의 이유가 생긴다.

천지왕이 머무는 곳은 하늘, 천상계이다. 그리고 빛을 창조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한편 천지왕이 만들어낸 너무 환한 빛, 해 둘 달 둘 때문에 낮에는 만민 백성들이 더워죽고, 밤에는 추워죽게 되는 모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모순을 해결해 줄 존재들로 귀동자가 필요했다고 신화는 말하고 있다. 천지왕은 하늘 옥황상제로 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낳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지상과 결합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 초자연적 존재인 천지왕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써 신앙민들은 절대적 신격으로서의 아버지 상을 표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화집단은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결합’으로 표상하여, 하늘의 뜻을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초공본풀이>의 아버지, 주자대선생은 ‘중’으로 그려지고 있다. 주자대선생의 모습에는 무속과 불교, 유교가 습합된 복합적 색채가 나타난다. 우선 신화는 중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불교적 이미지를 주로 차용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명명된 바로는 유학자적인 인상을 풍기며 삼천 선비들과 글을 읽는 모습이 나온다. 또한 주자대선생은 장삼을 입고 있다. 장삼은 승복(僧服)이다. 승복의 격식을 모방하여 무복 장삼으로 변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²⁹⁾ 무복이든 승복이든 그 내적 의미는 동일할 것이다. 불교의식에서 승려나, 무의식에서 무당은 장삼을 착용함으로써 그 자체의 거룩함으로 인해 성(聖)의 공간을 형성하고 그들의 신성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황금산 도단땅에서 왔다고 기술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중간적 위치로 파악되며,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주자대선생의 결합 방식은 일방적이거나 단독적인 것은 아니며 절차와 흐름을 중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료 <제주도신화>에 나타난 결합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9) 김은정(2004), 「승복과 무복으로 착용되는 장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2호, 대한가정학회, pp.158-159.

계집중은 아기씨가 직접 나올 수 없는 사정을 낱낱이 설명했다. 주자선생은 ‘만일 그 방문 자물쇠가 열려진다면, 아기씨가 손수 보시 쌀을 내올 수 있는가?’를 물어봐 달라고 하였더니 “어서 걸랑 그리 헛자” 고 아기씨는 쾌히 승낙했다. 승낙이 떨어지자, 주자선생은 요령을 들어 한 번을 흔들었다. 요령 소리와 함께 아기씨 방의 살창이 요동을 했다. 두 번을 흔드니 단단히 잠긴 자물쇠가 요동을 하고, 세 번을 흔들어 대니 자물쇠가 저절로 성강 하며 열려졌다.

아기씨는 하늘이 볼까, 청녀울을 둘러쓰고 사뿐 걸어 대문 밖에 나왔다. 주자선생은 한쪽 손은 장삼 소맷자락 속에 숨기고, 한쪽 손으로 전대 귀 한쪽을 잡고, 한쪽 귀를 입으로 물어서 “높이 들어 낮이(낮추) 시르르 비읍소서(부으소서).” 보시쌀을 받으려 하니 아기씨가 욱을 하였다.

“ 이 중 저 중 양반의 집에 못 땡길 중이로고나. 혼짝(한 짝) 손은 어딜 가고 전땡귀는 물었느냐? 너(너의) 에미 귀라(귀라서) 물었느냐?” “예. 혼짝 손은 하늘 옥황 단수육갑 짚으레 올라갔습네다.” 더 말을 할 수 없어, 아기씨가 쌀을 전대에 붓는데, 주자 선생은 소맷자락 손을 꺼내어 아기씨 머리를 세 번 쓸어댔다. 30)

이 장면을 통하여 신화집단은 결합 과정에 대한 일정한 순서와 절차를 내면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금산 도단 땅에서 주년국을 내려다보며 권재삼문 받아오기로 내기를 걸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예복을 걸치고 일정한 문답의 과정을 거쳐 결합을 이루는 주자대선생의 행동에서 주자가례에 나타난 혼례의 절차를 엿볼 수도 있다.³¹⁾ 이처럼 <초공본풀이>를 구송했던 신화집단은 의식의 차례와 격식을 매우 중요시 하며 세밀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결합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공본풀이>의 혼인은 ‘구덕혼사’를 통한 정혼으로 요약된다. 구덕혼사란 아기구덕에 얽혀 키우는 어린아이 때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혼을 시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30) 현용준, 앞의 책, p.42.

31) 이영배(2011), 「혼인습속의 고유성과 무(巫)의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국어문학 제50집, p. 145에 나타난 혼인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혼(議婚): 혼사를 의논하는 절차 2. 납채(納采):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혼인을 청하는 서식을 보내는 것 3. 납폐(納幣): 신부집에 예물을 들이는 과정 4. 친영(親迎): 신랑이 친히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것, 5. 부현구고(婦見舅姑): 신부가 시부모를 뵈는 것 6. 묘현(廟見): 신부가 사당에 인사 드리는 것 7. 서현부지부모(婿見婦之父母):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뵈는 것이다. 이것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적 과정에 대한 동일화의 원리가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부모의 의사로 결혼한다는 점인데, 즉 가문의 결합으로 응축될 수 있다. <이공본풀이>에 이르러서는 보다 현실적인 결합의 양상이 드러남을 알게 된다. 아버지 사라도령 또한 평범한 인간이다. 결합의 조건은 현실적 측면과 이상적 측면의 상보적 통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명예를 가진 집에서는 부를 증여받고, 부를 가진 집에서는 명예를 공유하는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공본풀이> 서사에 뚜렷하게 이러한 양상이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절에 원불수륙제를 들이러 갈 때 몹시 가난한 김진국이 천하 거부 임진국에게 불공 재물에 관한 빛을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천하 거부 임진국이 재물을 내어주고, 몹시 가난한 김진국의 명예를 공유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것은 김진국의 아들 사라도령이 꽃감관으로 봉해지는 서사로 이어지며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들 세 편의 결합 신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결합 신화소의 전개 양상

부(父)	천지왕	주자 대선생	사라도령
출현양상	하늘	황금산 도단땅	한 마을
권위	절대적	혼합적	현실적
결합선택	일방적 선택	선택과 허락	상보적 통합

이 들 세 편의 결합 신화소를 <표2>와 같이 정리하면 아버지의 출현 양상에 따른 위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공간적으로는 ‘하늘-이계-땅’으로 이어지며, 그로 인해 아버지의 권위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초공본풀이>에서는 혼합적인 권위를, <이공본풀이>에서는 현실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각 결합 선택에 있어서도 ‘일방적-선택과 허락-상보적 통합’ 양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3. 부친탐색 신화소

이 연구에서 ‘부친탐색 신화소’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까지의 서사단락이다.

앞서 살펴 본 결합의 결과는 아버지 부재로 이어진다. 절대적 존재인 천지왕은 하늘로 돌아가야만 한다. 누구나 인정하는 부재이다. 주자대선생 또한 황금산 도단 땅으로 돌아간다. 이계적이며 비현실적 존재이기에 그의 현실적 부재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 사라도령은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떠났다. 거역할 수 없는 명을 받들어야만 하는 인간의 한계를 반영하는 원초적 부재로 읽힌다. 이때 아버지 부재는 결핍을 낳게 된다. 그리하여 신화속 주인공들은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행위로써 탐색을 행하게 된다. 각 편들에 나타난 탐색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우선 아버지를 찾게 되는 이유가 ‘아비 없는 호래자식’이라는 욕 때문이다. 욕은 상대자의 아픈 곳을 찌르고 상대자의 약점·결점을 될 수 있는 대로 과장하여 폭로한다. 아들의 사회적 역할이 시작되는 시기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최고의 결핍요소였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아들은 본능적으로 그 결핍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쌍둥이 형제는 어머니가 건네 준 박 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신적 존재인 아버지가 있는 곳이 하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신화의 세계에서 보편적 관념이다. 하늘은 신화세계에서 신성한 공간으로 사유되었다. 그곳으로 박을 타고 오른다는 것은 박이 지닌 상승지향성을 동일화한 것이다. 또한 백(白)·박(朴)과 동일한 음을 가진 식물이며,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³²⁾ 하늘의 이미지와 박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쌍둥이 형제는 쉽게 아버지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초자연적 존재인 아버지를 찾아가는 행위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그들 쌍둥이 형제에게도 그러한 신적능력이 배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늘 용상에 아버지는 안 계셨다. 천지왕은 가장 큰 힘과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현실에는 없는 ‘숨은 신’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부재하면서도 최고의 신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세계인 하늘에서 보여준 대별왕과 소별왕의 행동은 자연스런 부자지간의 행위로 해석된다. 아버지가 신이었지만, 신의 아들이기에 용상은 당연히 그들의 차지가 되었고, 이로써 자연스러운 승계가 암시되고 있다.

<초공본풀이>의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려내기 위하여 아버지를 찾아간다. 즉, 어머니의 죽음은 낳아 준 존재의 소멸이기에 아들들에게는 육체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부친탐색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된다. ‘삼형제는 단숨에 황금산 도단 땅

32) 이수자·조희웅(1996), 「고대서사문학에 나타난 「신분인지소(身分認知素)」에 대한 연구, 질의」, 『고전문학연구』 3권, 한국고전문학회, p.262.

을 찾아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는 탐색의 이유가 그만큼 중대하며, 해결 의지 또한 매우 높았음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읽힌다. 그리고 삼형제에게는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삼천 선비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음을 떠올려 보자. 아비도 없는 '호래자식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물론, 활쏘기도 잘한다는 것은 그들이 문무를 겸비한 영웅으로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이다.

또한 어머니인 자지맹왕아기씨의 출산과 양육의 고통은 삼형제의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공본풀이>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화소 중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표3> 전반부와 후반부의 화소 중첩 양상

아기씨의 출생	삼형제의 탄생
작죄	고난과 성공1
축출	성공2와 고난
남편탐색	부친탐색
좌정	좌정

전반부는 자지맹왕아기씨의 축출과 남편탐색화소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는 삼형제의 고난과 부친탐색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 어머니의 삶과 고통은 아들인 초공 삼형제의 탄생 배경으로서 그들에게도 투영될 수밖에 없다. 삼형제와 동일화되고 있는 어머니가 고통의 극단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다. 이것은 육체의 결핍이며 절체절명의 순간이기에 아버지를 찾아 단숨에 도달하여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들의 도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차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신분 인지 과정으로 어머니가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쫓겨난 자지맹왕아기씨는 장삼 한 쪽과 고깔 한 쪽을 들고 주자대선생을 찾아간다. 반분(半分) 합일(合一)로 신분 인지가 이루어졌으나 순조로운 재결합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자지맹왕아기씨는 고된 노동으로 신이함을 시험받고 난 이후에 아내로 비로소 인증 받는다. 이것은 현실적 존재인 아들이 신적 존재인 아버지에게 혈통과 능력을 검증 받으며 2차적 시험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동일하게 읽힌다. 하지만 아내에게 신격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불도 땅에 내려가 홀로 살림을 꾸려나가게 된다. 여기까지가 초공 삼형제의 탄생을 위한 예비적 서사이다.

그 이후 삼형제가 태어난다. 전반부의 고통의 원인을 ‘불부이잉(不夫而孕)’으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후반부의 삼형제의 생활양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공 삼형제는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금의환향하며 그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였으나, 결국에는 삼천선비의 모략과 간계로 어머니가 죽임을 당한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초공 삼형제는 우선 외할아버지를 찾아간다. 어머니의 죽음은 처녀 임신으로 인한 가정 내 축출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었으므로 그 해원의 열쇠를 외할아버지가 쥐고 있다고 믿는 신화집단의 의식을 읽을 수 있다. 외할아버지는 먼저 돛 자리를 깔아주며 앉으라고 했다. 이는 예와 격식을 갖추어 이들을 맞이한 것으로 해석되며,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일러주는 것은 절차와 예법에 따라 그 해결의 순서를 찾아나가는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유는 사회적 결핍 때문이다. 이는 주체에 대한 자기 각성의 시기에 일어난다. 자료 <이공본풀이>에 따르면 “열다섯 살이 될 무렵 할락궁이도 이젠 자랄 만큼 자랐으니 집안의 눈치를 알게 되었다.” 라 되어 있다. 몸종으로 팔린 어머니 원강암이의 존재로 인하여 계부(繼父)로서의 제인장자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열다섯 살을 전후하여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확인하게 된다.

사회적 결핍을 해소하는 길은 단순하지 않다. 우선 장자집 개를 따돌려야만 한다. 이는 경계 허물기의 고난으로 보인다. 사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친탐색을 하는 첫 출발은 자기 경계 허물기이다. 메밀범벅으로 천리둥이 개, 만리둥이 개를 따돌리고 드디어 경계를 벗어나게 된다. 다음은 물을 건너게 된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며 여기서는 어머니의 피로 환유되고 있다. 앞서 아들이 벗어난 공간은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여야만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어머니로부터 왔으나, 어머니를 부정해야만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는 측면은 또 하나의 통과 의례이다.

어떤 사회에서든 인간은 하나의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통과하여 나간다. 이것은 생장 성장 소멸하는 자연의 법칙으로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주적 원리이다. 이때

통과는 전 단계의 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처녀·총각을 부정하면서 혼인의 단계로 나가고, 아버지·어머니로 도약하기에 이른다. 이런 통과 의례는 신이든 인간이든 삶의 서사를 동반하는 순간 누구나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할락궁이의 부친탐색 과정은 사회적 자아의 결핍을 채워 나가는 통과 의례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 사라도령과의 만남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나타난 첫 번째 부자확인 절차는 ‘합혈(合血)’이다. 피 섞기는 흔히 의형제 맺기에 사용되어 온 인류의 한 관습인데 신화집단이 피를 생(生)으로 인식하였음을 알게 된다. 생(生)의 시원은 부모이기에 부친탐색 과정에서 합혈은 가장 원초적인 신분 확인 절차이다. 원시적 개념 및 의식의 절차에서도 피는 권위와 힘을 상징하였다. 합혈을 통한 부자인지는 가장 강력한 결합 요인이 된다. 두 번째 확인 절차는 얼레빗 반쪽을 맞추는 일이다. 인간적 존재인 아버지가 하늘의 명을 따라 서천꽃밭으로 가야만 했듯이 여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아들 역시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고된 과정을 수행해야만 함을 신화집단은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세 편에 나온 부친탐색신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부친탐색 신화소의 전개 양상

부(父)	천지왕	주자 대선생	사라도령
탐색동기	정신적 결핍	육체적 결핍	사회적 결핍
과정	수월함	고난과 수월함의 혼합	고난
신분인지소	박씨	나타나지 않음 (부부인지소: 장삼과 고깔)	합혈, 얼레빗

이 들 세 편의 부친탐색 신화소를 <표4>와 같이 정리하면 탐색 과정에 나타나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본풀이의 서사적 특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천지왕을 찾아가는 경우, 대별왕 소별왕은 고난 없이 비교적 수월하고 수직적인 양상으로 탐색이 진행된다. 이것은 신의 세계를 향한 탐색으로써 그 세계 자체에 대한 탐색이므로 오히려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신화집단은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짧은 서사로 부친탐색이 완료된

다.

주자대선생을 찾아가는 경우, 직접적인 고난은 드러나지 않으나 그 준비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고난과 성공이 역동적으로 얽히면서 삼형제의 부친탐색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서사는 고통과 해결의 2회 반복 구조로 이루어지며 선악의 대립쌍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길고 자세하게 진행된다.

사라도령을 찾아가는 활락궁이의 부친탐색은 통과레이며 고난에 차 있다. 활락궁이의 탐색 동기는 자아의 주체적인 각성으로 시작되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사회적 결핍을 해소하고 자아의 정통성을 찾기 위하여 부친탐색을 시도하게 되고, 그 대가로 어머니의 죽음이 뒤따른다. 이것은 현실적 존재인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거쳐야만 하는 발달 과업의 전 과정이 고통을 이겨낼 때 비로소 도달 가능하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증여와 답례 신화소

이 글에서는 부친탐색 이후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그 권위와 힘을 구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사 단락을 ‘증여와 답례의 신화소’라 명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아버지는 증여자가 되고, 아들은 답례자가 된다. 이 논의를 위하여 “아들은 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것일까?”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다.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에 따르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적 존재들은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되돌려주며, 또 이익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답례한다고 믿었다.³³⁾ 이렇게 본다면 아들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영적 존재인 아버지를 찾아 나선 것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탐색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화 속 아버지는 증여를 위한 예비자로서 부친탐색화소에는 다양한 증여의 양상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에도 증여와 답례의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천지왕은 이승과 저승을 증여하며, 주자대선생은 굿하는 법을 가르쳐 주며 삼형제에게 일일이 그 신직을 수여하고 역할을 배분한다. 또한 사라도령은 꽃감관으로서 수레멜망약심꽃, 환생꽃, 웃음웃을꽃 등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따 주었다. 그에 따라 소별왕 대별왕은 이승법 저승법을 세우는 답례를 하였고, 초공 삼형제는 무조신으로 좌정하여

33)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류정아 해제(2002), 『증여론』, 한길사. pp.59-80.

어머니를 살려낸 후 무법(巫法)을 확립하는 것으로 답례한다. 할락궁이는 주화(呪花)를 다스려 제인장자 일속을 징치하고 어머니를 환생시키며 꽃감관으로 좌정하며 답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각 편들에 나타난 증여와 답례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천지왕본풀이>에서 두 형제는 아버지로부터 이승과 저승을 증여받는다. 소별왕 대별왕 형제에 대한 증여는 앞서 ‘결합 신화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혼란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줄 귀동자로 예언되었다. 신화집단은 세계가 이승과 저승으로 분할되어 있다고 믿었기에 소별왕과 대별왕은 세계 그 자체를 물려받은 것이다. 그 세계를 내려다보는 천상의 존재가 아버지 천지왕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버지가 나누어준 세계를 하늘의 법칙에 따라 다스리지 않고 수수께끼 내기와 꽃피우기 내기를 통하여 인간의 법칙을 적용하며 재조정을 시도한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자연스럽고 순조로운 분할과 통치였다면 이승과 저승은 지혜로움과 생명 탄생 능력에 따라 질서를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소별왕이 속임수를 썼다. 이승을 관장할 능력과 덕목을 가진 자, 즉 대별왕이 이승을 증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승법이 마련될 때 이승의 주재자가 저지른 원죄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직은 독립적인 것이며, 더 이상 신화 서사에서 천지왕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³⁴⁾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앞서 천지왕이 보여주었던 모순과도 일치하며 인간과 신의 거리를 좁히며 무(巫) 사제자의 존재 의미를 높여준다. 즉, 태고의 천지개벽 때부터 문제가 생겨났으며 신들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으나 미완이었으며, 인간의 삶도 그러하다. 이러한 모순의 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신앙민들은 제의를 통하여 신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무당은 제의를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신화

34) 박종성(1999), 『한국창세서사시연구』, 태학사, p.56에서 창세서사시에 나타난 심부담 양상을 고찰한 바, 17편의 체록본 중 <제석본풀이> 3편(박용녀본, 최음전본, 권순녀본)과 <천지왕본풀이> 4편(문창헌본, 박봉춘본, 정주병본, 이무생본)에서 심부담화소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선학들의 창세신화 연구에 따르면 육지부의 <제석본풀이>에는 ‘인세차지경쟁화소’가 서사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는바, 이는 불교에서의 절대 신격이 이미 현현하는 것으로 전제한 후 서사를 전개하기 때문에 부친탐색화소가 필요치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박종성의 연구에서는 소별왕 대별왕을 인간영웅으로 설정하고 그 혈통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부담의 기능을 해석하였는데 이들을 영웅으로 설정하기에는 문제 해결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오히려 천지왕을 대신하는 절대 신격의 구체적 표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인간 영웅으로서의 면모보다는 신으로서의 위대성과 모순성이 동시에 발견되기 때문이다.

속 주인공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게 된다.

경쟁과 속임수 가운데서도 소별왕과 대별왕은 질서를 정립해 나가며 아버지의 증여에 답례해 나간다.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증여는 절대적 존재인 아버지가 자신과는 독립적인 신직 증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신격의 발현은 전적으로 아들의 몫이다. 이를 ‘순수증여’라 명명하고자 한다.³⁵⁾ 주고 받고 되돌려 주는 답례의 과정이 예정되지 않은 순수 증여는 증여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절대적 존재로서 아버지의 권위가 어떤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는 아버지로부터 무당이 되는 방법을 증여받는다. 반가이 맞아준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리는 방법은 ‘전생팔자 그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화집단이 의식하고 있듯이 무당이 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운명을 걸고 해야만 하는 험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무당의 신격’을 증여하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앞서 증여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전제하였으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여는 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물적·정신적 형태의 증여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사회 종교적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무당으로서의 신직을 증여한다는 것은 신화가 널리 구송되던 그 당대 무당은 사회 종교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이며 필수불가 사회적 존재였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여기서 무당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전생팔자를 그르친다’는 의미가 첨가되었고, 무당으로서의 삶이 종교의 사제자로서 평범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신앙민들의 의식 반영으로 보인다.

천지문이 새겨진 천문기구를 받은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세상을 연결하며 무사제자로 입문하는 첫 발걸음을 상징한다. 또한 아버지는 삼형제에게 각각 곳거리의 책임을 나누어준다. 이수자(2004)의 제주도 큰 곳 열두거리 제차를 순서대로 나눈 바에 의하면³⁶⁾

35)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들, 계층들, 하위집단과 상위집단들 사이에서, 그리고 세대로 구분되는 집단들,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이, 살아있는 존재와 죽은 존재, 자연적 실체들과 초자연적 실체들,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화, 부, 생산물뿐만 아니라 애도, 농담, 모욕, 저주, 심지어 복수까지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순환하고 있다. 모스는 이러한 순환 규칙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를 ‘주고/받고/되돌려주는’ 증여 행위의 세 가지 의무 체계로 이해한다. 박정호(2009),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증여의 사회학적 본질과 기능 그리고 호혜성의 원리에 대하여」, 『문화와 사회』 7권, p.9)에서 재인용. 이 글에서는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에 기대어 증여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무친탐색의 결과로 발생하는 증여에서 신직의 중복 여부에 따라 중복되지 않으면 ‘순수증여’, 부분적인 중복과 독립이 혼합될 때는 ‘증여’, 완전한 중복일 때는 ‘교환’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6) 이수자(2004), 『제주도 무속을 통해 본 큰 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삼형제는 큰 곳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임을 다하도록 역할 지어지고 있다. 우선 만형인 신맹두가 증여받은 초감제는 가장 상위의 신인 <천지왕본풀이>가 불리는 제차이다. 그리고 생불할망 본풀이가 불리는 불도맛이를 거쳐 <초공본풀이>가 불리는 초신맛이는 두 번째 본맹두가 맡게 된다. 그 후 이공제, 삼공제를 거쳐 시왕맛이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세 번째 삼맹두에게 증여된다. 시왕맛이는 저승차사신의 본을 푸는 거리로서 강림차사본풀이와 더불어 사만이본풀이, 지장본풀이도 함께 구송된다. 이것은 삼형제에게 증여된 신직이 곧 곳 열두거리 전체임을 말한다. 큰 곳을 모두 마련하여 진행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라는 아버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곳을 할 때 쓰는 무구(巫具)를 만들게 된다. 북·장고를 만들기 위하여 너사메너도령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너사메너도령과 의형제를 맺고 깊은 산에 올라가 오동나무를 끊어오고 말가죽을 벗겨다가 북·장고를 만들었다. 이 무악기를 가지고 삼천천제석궁에 들어가서 두 이레 열나흘 동안 북소리를 마구 울려대라는 명을 받게 된다. 이는 실제로 곳을 할 때 무악기 연주를 위하여 껌이들이 함께 곳에 참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너사메너도령은 곳을 돕는 반주악사로서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삼형제는 동해 바다의 쇠철이 아들을 불러와서 요령과 천문, 상잔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칼을 만들었다. 이로써 곳을 위한 무구 제작을 완료하기에 이른다.

구하는 방법과 도구를 받은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려낸다. 이때 이 방법을 전수해 준 아버지 주자대선생의 모습은 더 이상 서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이계(異界)적 존재였기에 현실 속 부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그는 다양한 층위의 종교 사제자의 모습이 습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이계에서 종교 성직자로 그 역할을 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부친탐색의 결과로 삼형제가 증여 받은 것은 무법(巫法)이다. 아버지의 신직과는 내용적으로는 겹치면서도 공간적으로는 독립적이다. 그러므로 ‘증여’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커진다. 아들은 아버지의 증여에 적극적으로 답례하게 될 것이며, 아버지는 때때로 그 역할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문제와 그 해결의 답을 찾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락궁이가 부친탐색의 결과로 당도한 곳은 ‘서천꽃밭’이었다. 장자집 개를 따돌리고, 물을 세 번 건너 한참 가다보니 서천꽃밭이 보였다. 합혈과 본메본장 얼레빗 맞추기를 통

한 신분 확인이 끝나고 아버지와 첫 상봉이었으나 정담을 나눌 겨를도 없이 아버지는 꽃을 따 주며 어서 바빠 내려가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라 하였다. 신화집단이 구송하던 큰 곳의 본풀이 서사를 기본으로 재구성해 보면 서천꽃밭은 원래 아기 산육신인 불도신 생불할망이 처음 만든 것이다. 이 여신은 하늘에 올라 동해용왕따님애기와 꽃피우기 시합을 벌여 이기고, 생불신이 된 후 사람을 잉태시킬 수 있는 꽃씨를 얻어 가지고 와 이것을 심어 ‘서천꽃밭’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불꽃을 따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를 잉태시키는 것이다. 생불꽃이 인간의 탄생을 관장하였다면, 악심꽃은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다.

아들 활락궁이가 부친탐색의 결과로 아버지에게 받은 것은 서천꽃밭에 피어 있는 주화(呪花)이다. 그중 <이공본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꽃은 ‘환생꽃’으로 보인다. 이는 신화집단이 무당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추론한 결과이다. 무속의례를 통하여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수레멜망악심꽃의 실현을 기원하기보다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나 질병, 출산, 결혼, 죽음 등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기양의례(祈禳儀禮)로서의 기능이 더욱 절실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무당은 바리데기에서 나타나듯이 죽은 아버지를 살리는 약수(藥水)를 구해오는 최초의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만큼 치료사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증여는 서천꽃밭에 피어있는 치료제로서의 환생꽃이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 존재들의 욕망이자 기원이었으므로 언제나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증여는 아버지의 신직을 아들에게 전위하는 방식을 택하며 통과의례의 과제를 수행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환’이라 명명할 수 있다. 이로써 이들의 신직은 중복되면서 항상 현실적인 자기 수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가를 치러야한다. 이것은 곧 자연 속 꽃이 피고 지는 일과도 일맥상통하는 신화 속 상징으로 해석된다. 이 세 편에 나온 증여와 답례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증여와 답례의 양상

부(父)	천지왕	주자 대선생	사라도령
증여	이승과 저승 통치권	굿법	서천꽃밭 주화
신직중복여부	독립	중복과 독립 혼합	중복
증여양상	순수증여	증여	교환
답례	이승신 저승신 좌정	무조신 좌정	꽃감관 좌정

이 들 세 편의 증여와 답례의 신화소를 <표5>와 같이 정리하면 신직 중복 여부에 따라서 증여의 종류를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천지왕은 하늘의 신으로서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아들들에게 증여한다. 전적으로 신격은 독립을 이루며 각각 그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서 절대성이 확보된다. 그래서 신격 중복이 일어나지 않기에 상호간섭이 없는 ‘순수 증여’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자대선생은 삼형제에게 굿법을 전수한다. 주자대선생은 이계의 사제자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지상의 사제자로 삼형제가 그 신직을 계승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신직이 중복됨으로 그 기술과 방법의 수행에서 언제든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관계이며 증여와 답례의 가장 활발한 시공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라 말하고자 한다.

사라도령은 주화(呪花)를 따주며 꽃감관 자리를 증여한다. 그런데 주화(呪花)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주체의 적극적 작용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직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곧 시들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라도령의 주화(呪花)는 적절한 때와 장소에 따라 알맞게 쓰여야 하며 그 소유 또한 제한적이다. 앞서 아버지 사라도령이 인간적 존재라는 한계를 계속해서 신화집단은 의식하고 있으며 주화(呪花)를 관장하는 꽃감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통과의례적 과제 수행의 대가를 필요로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환’ 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5. 신직 해석 신화소

이 글에서는 본풀이 서사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본풀이 서사 이후에 남겨진 법(法)을 말하고 있는 대목을 ‘신직 해석의 신화소’라 명명하고자 한다. 자료 <제주도신화>에 나타난 세 편의 본풀이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다 보면 표층구조에 드러난 등장인물들의 행위와 사건을 해석하는 또 다른 서술자를 만나게 된다. 이 서술자는 제의를 이끌어가는 존

재였을 것으로 보이며, 본풀이 속 서술자와 겹치며 본풀이를 제의의 가치 체계 속에서 재해석하는 존재로 보인다. 실제로 이 이야기꾼은 ‘무당’이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올리크(Axel Olrik)의 서사시의 법칙 중 종결의 법칙에 해당할 것이다. 이를 본풀이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장주근(2001)에 따르면 본풀이는 신화로서 신화가 가지는 원초적 설명성으로 그 끝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³⁷⁾

<천지왕본풀이>에 드러난 신직 해석의 신화소가 가진 핵심 가치는 현실적 모순의 시원에 관한 해명이다. 자연적 상태에서 문화적 상태로 이월하면서 생긴 혼돈으로 인간의 악과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신화집단의 현실 인식이 그대로 신격으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절대적 존재인 천지왕에게조차 인간적인 결핍과 실수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으며, 소별왕은 우주 창조를 이어받으면서 자신의 지략으로 대별왕을 속여서 이 세상을 차지함으로써 이 세상의 악이 유래되었다고 하는 경계면을 넘나드는 트릭스터로 그려지며 인간상의 현실태를 반영하기도 한다.³⁸⁾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은 현실 세계인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초월적이고 우월한 본질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하지만 신격의 형상은 인간의 모습에 기대어 구체화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초공본풀이>에 드러난 신직 해석의 신화소가 가진 핵심 가치는 무당의 시원이 정통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세워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화집단에게 오랜 기간 전승되었을 <초공본풀이>는 무당의 시조를 구송한다는 차원에서 무당 자신에게는 물론 곳에 참여하는 신앙민들에게도 성스러운 송양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무조신의 행적을 되풀이하여 찬미하며 무당의 역할을 되새기고, 신앙민들 자신도 그 신격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실재하며 의미가 있다는 체험을 하는 것을 엘리아데는 거룩함, 성스러움의 체험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들을 모방함으로써 인간은 거룩한 것 속에 따라서 실재 속에서 머무르게 된다. 모범적인 신의 태도를 계속적으로 재연함으로써 세계가 성화된다. 인간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세계의 신성성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다.”³⁹⁾고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초공본풀이>도 무당과 신앙민이 거룩함, 성스러움의 체험을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었을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서만 성스러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화가 성스러운

37) 장주근(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pp.60-61.

38) 김현선(2003),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p.358.

39) 메르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1983), 『성과 속』, 학민사, p.77.

것은 작품 밖의 현실에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가령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서에 기록된 하느님의 행적이 지금 현실에 영향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고구려인은 “스스로 신화적 질서의 일부라고 생각해서....(중략) 광개토왕의 치적을 말하기 전에 주몽신화부터 서술하였다.⁴⁰⁾ 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신화적 질서가 작품 밖의 현실 세계까지 지배하면서 신화적 성스러움은 세계를 성화시킨다.

<이공본풀이>에 드러난 신직 해석의 신화소가 가진 핵심 가치는 죽음을 예방하는 시원을 주화(呪花)를 통하여 구체적 상징으로 밝히고 있는 점이다. 제의에는 꽃들이 많이 사용된다. 대개는 생화보다는 종이로 만든 지화(紙花)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제물을 진상하는 제단, 즉 전안의 후면에 놓여 있거나, 제단의 전면 양쪽에 놓여 있거나 별도의 장소에 놓여 있기 마련이다. 이들 꽃들은 각기 이름과 색깔들을 달리하면서 그 황홀한 아름다움으로 의례를 빛내준다. “꽃 없는 전안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⁴¹⁾

꽃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왕에 신을 모시는 일이므로 멋있고 화려한 꽃 장식을 하였을 것이라 설명하기도 하지만⁴²⁾ 꽃은 신격 그 자체이거나 영혼이 깃든 사령(死靈) 그 자체로 생각된 것은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다.

태고 이래로 꽃과 마력이 연결된 예는 많다. 아랍인은 태양이 가장 오래 하늘에 머무는 하지 무렵을 신비로운 시기라 생각하였고, 이 시기에 탄 식물에는 불가사의한 마법의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식물의 번식력을 빌려서 아이가 생길 수 있도록 기원하며 벌거벗은 채로 채소밭을 걸었다고 한다. 마법이나 점에 쓰기 위해 하지에 꽃을 따는 관습이 있는데 그런 꽃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고추나물이다. 이 꽃은 하지 무렵에 만개하는데 빛나는 노란색 꽃잎과 황금색 수술이 이 시기에 하늘의 정점에 이른 위대한 태양과 닮았기 때문에 이 꽃을 땅 위의 작은 태양으로 여겼다.⁴³⁾

이처럼 신화집단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꽃을 통하여 인간의 생과사를 교접할 수 있

40) 조동일(1977),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p.111.

41) 양종송·최진아(2002), 「서울곳의 신화(神花)」, 『한국무속학』 4, 한국무속학회, p.63에서는 무속의례에 등장하는 꽃은 종교적인 꽃으로서 의식이나 의례를 위해 만들어지는 꽃이라 보고, 꽃은 신이 하강하는 통로이며, 신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상이고, 신이 깃들여져 있기도 하며, 신을 위해 봉양하는 꽃이라 하였다. 그리고 신을 청신, 봉신, 오신, 송신하는 꽃이기도 하며, 태평성대, 장수, 개인의 기복적인 의미까지도 함께 함축하고 있어 매우 신성시되는 꽃이므로 신화(神花)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필자는 여기에 공감하면서 내용적으로 신성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구체적 상징의 표상물로 해석하려한다.

42) 심상교(2003), 「동해안 별신굿 지화조사 연구 1」, 『한국무속학』 6집, 한국무속학회, p.35.

43)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경덕 역(1995), 『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 까치글방, p.376.

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꽃은 때로는 띠와 뗏뉘을 묶어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형겼을 이용하여 인형으로 만들어 꽃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표6> 신직 해석 신화소의 전개 양상

부(父)	천지왕	주자 대선생	사라도령
법의 확립	불완전한 이승법 맑고 공정한 저승법	무당을 맞이하는 법 무당기구 만드는 법	수레멜망악심꽃법

이 들 세 편에 나타난 신직 해석의 신화소를 <표6>과 같이 정리하면 무당의 역할과 신격의 정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불완전한 이승법으로 인하여 무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출발한다. 즉 무당은 제의를 통하여 신과 인간 사이에 공존하는 모순을 해결하고 일체가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주자대선생으로부터 무법을 체계적으로 전수 받았다. 또한 인간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레멜망악심꽃과 환생꽃을 다스릴 줄 아는 존재로서 무당의 위치를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해석 신화소들은 뉘토스적인 이야기 요소들을 통합하여 보다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실체로 제의의 가치를 도출해내는 로고스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제의의 고정적인 정통성을 확보하도록 해준다.

Ⅲ. 부친탐색담의 의미 기능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의 분석을 통해 ‘부친탐색화소’를 중심으로 한 서사 전개가 네 가지 신화소로 정리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결합의 신화소’, ‘부친탐색의 신화소’, ‘증여와 답례의 신화소’, ‘신직 해석의 신화소’가 종합적으로 각 편의 본풀이에서 어떤 의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가 어떤 의미로 신앙민들에게 전달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각 편의 본풀이가 지닌 역할을 규명하는 일이며, 제주 큰 곳 열두거리에서 상위 신격에 해당하는 이들 세 편에 ‘부친탐색화소’가 뚜렷하게 드러난 이유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1. 절대 신격의 승계

<천지왕본풀이>는 ‘결합의 신화소’, ‘부친탐색의 신화소’, ‘증여와 답례의 신화소’, ‘신직 해석의 신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 신화소에 따라 <천지왕본풀이>의 서사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왕은 총맹부인과 천정배필을 맺어 소별왕과 대별왕을 낳고(결합) 천지왕이 떠난 후 태어난 소별왕과 대별왕은 부재한 천지왕을 찾아간다.(부친탐색) 천지왕을 찾은 소별왕 대별왕에게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 권한을 주며, 쌍둥이 형제는 이승법과 저승법을 만들어낸다.(증여와 답례) 이에 따라 혼란한 이승법과 맑은 저승법의 만들어졌다.(신직 해석)

탐색의 신화소를 중심으로 보면 천지왕은 아버지이면서 부재자이고 소별왕과 대별왕은 아들이면서 찾는 자이다. 부재는 필연적으로 필요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버지를 찾는 탐색의 신화소는 반드시 어떤 필요를 전제하게 된다.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부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별왕과 대별왕이 아버지의 부재를 인식하고 아버지를 탐색하는 과정은 소별왕과 대별왕이 어떤 필요를 인식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소별왕과 대별왕이 아버지의 부재를 인식하고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결합의 과정에서부터 예비된 문제이다. 결합의 과정에서 예비되었다는 것은 천지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야 할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다. 주어야 할 무엇이 예비되어 있고 받아야 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탐색의 과정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아버지 천지왕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지왕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해도 둘, 달도 둘을 만들어 천지를 개벽시켰다.

그러나 해와 달이 둘이어서 세상은 혼잡한 판국이다.

천지왕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만든 주체로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하늘과 땅을 주관한다는 뜻은 만들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를 없앨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해와 달이 둘인 혼잡한 세상에 대한 해결을 총명부인과 결합으로 이루어내고자 한다. 이는 천지왕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또 다른 권위나 힘을 가진 자를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소별왕과 대별왕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권위와 힘을 승계할 예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화집단은 새로운 권능이나 힘의 출현을 모두 자연스럽게 수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권능이나 힘이 자연스럽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힘이 당연하다고 여겨져야만 한다.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선택된 존재이어야 하고, 둘째 그만큼 능력을 지닌 경우에 가능하다.

선택된 존재라는 점은 천지왕과 소별왕 대별왕이 부자지간이라는 혈통 관계에서 증명된다. 이것으로 그들은 고귀한 혈통을 지닌 선택된 존재임이 성립된다. 그런데 이런 관계 설정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은 증표를 확인하는 모티프가 개입되면서이다. 소별왕과 대별왕은 천지왕이 남겨놓은 박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박줄기는 지붕으로 뻗어 오른다는 백과사전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늘로 올라 천지왕에게 갈수 있도록 해 주는 매개체이다. 박줄기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 행위는 선택된 자에게만 허용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신화집단에게 소별왕과 대별왕이 선택된 자임을 인식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이다. 이를 본풀이 밖 제의 현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보면 <천지왕본풀이>에서 증표를 확인하는 것은 천지왕 자신이 아니라 본풀이의 청자인 신앙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천지왕은 이미 보이지 않는 숨은 신이며, 제의 현장에서는 구체화된 표상을 확인하는 과정과 성

속의 일체를 통하여 신앙민들이 성화(聖化)되기 때문이다.

소별왕과 대별왕이 선택된 자라 할지라도 소별왕과 대별왕이 새로운 권능이나 힘으로 인정받고 수용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에 알맞은 능력의 소유이다. 천지개벽과 함께 만들어진 이승과 저승의 혼재는 여전하다.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 자를 구별해야하며 그 법을 확립해야만 한다. 이승과 저승의 문제는 신화집단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승과 저승의 문제, 곧 삶과 죽음의 차이를 그들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 속에서 이승과 저승을 하나의 유기적 관계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현실적으로 늘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화집단은 이승의 세계와 저승의 세계가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삶과 죽음이 혼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를 다스릴 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내기이다. 내기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결정짓는 게임이 아니다. 누가 이승을 다스리기에 더 적합한지, 누가 저승의 세계를 다스리기에 더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소별왕은 부정한 방법으로 몇 번의 내기에서 이겨 이승을 차지하고 대별왕은 저승을 차지한다. 이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몇 번의 내기를 통해 이승의 특성과 일치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인 것이다. 이승은 혼란한 세상, 분별이 없는 세상, 질서가 말이 아닌 세상이었다. 저승은 맑고 공정한 세상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승의 특성에 맞는 존재는 소별왕이 되고, 저승의 특성에 맞는 존재는 대별왕이 되는 것이다.

소별왕과 대별왕은 고귀한 혈통으로 선택된 자임을 박 씨를 매개로 입증한다. 그리고 소별왕과 대별왕의 내기를 통해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만한 능력을 확인받는다. 이 두 과정은 선택된 존재에게 적합한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을 나타냄과 동시에 소별왕과 대별왕에게 권력이 이양됨이 정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정당성은 제의 과정에서 신앙민들에게 내재화 되는 것이다.

이는 신직 해석의 신화소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이로써 자연의 질서는 바로잡혔다. 형은 그 이상 더 수고를 해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인간 세상엔 역적, 살인, 도둑, 간음이 여전히 많은 법이고 저승법은 맑고 공정한 법이다.

신직 해석의 신화소를 통해 소별왕과 대별왕이 갖는 새로운 권능과 힘으로 자연의 질서가 바로 잡혔음이 드러난다. 이는 소별왕과 대별왕에게 아버지 천지왕의 절대 권력이 이양되었고, 이것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신앙민들은 제의 속에서 이들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는 새로운 권능과 힘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승법과 저승법의 차이에 관한 본풀이와 신앙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승과 저승의 관념이 일치를 이루면서 세속의 시간과 종교의 시간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신앙민들은 하늘로부터 승계한 새로운 절대 권력을 수용하게 되며, 이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천지왕본풀이>에 드러나는 의미 기능은 신화집단에게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로서 소별왕과 대별왕을 확인시키는 과정이다. 동시에 신앙민들에게 이승법과 저승법을 받아들여만 한다는 의식을 내재화 시키는 것이며, 이는 제의의 정당성이 천지왕으로부터 온 절대적인 것임을 믿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음이다.

2. 무법 능력의 이양

<초공본풀이>도 ‘결합의 신화소’, ‘부친탐색의 신화소’, ‘증여와 답례의 신화소’, ‘신직 해석의 신화소’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 신화소에 따라 <초공본풀이>의 서사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자대선생과 자지멩왕아기씨와 결합하여 삼형제를 낳는다.(결합) 주자대선생의 부재 상태에서 태어난 삼형제가 어머니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황금산 도단땅으로 주자대선생을 찾아간다.(부친탐색) 아버지는 삼형제에게 무법의 기술을 전해주며, 아들 삼형제는 무법·무악기·무구를 만들어 어머니를 살려내었다.(증여와 답례) 이에 따라 무법이 정리되고 유정승따님아기씨가 실제로 곳을 했던 이야기를 부연하여 보여주고 있다. (신직 해석)

‘부친탐색의 신화소’를 중심으로 보면 <초공본풀이>의 부재자인 아버지는 ‘주자대선생’이다. 무교·불교·유교 습합의 의미를 가진 존재이며, 하늘과 땅의 중간계인 황금산 도단땅에 살고 있는 존재이다. ‘주자대선생’의 백과사전적 의미는 다양할 것이나, 여기서는

주자라는 대학자의 권위와 능력을 지닌자로 해석하고자 한다. 주자학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도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적인 삶의 학문이다. 현실적으로 힘을 가진 존재를 아버지로 설정함으로써 신화집단은 삶을 죽음에 투영하여 이해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실적인 권위와 능력을 지닌 존재라면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에 관한 해답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아버지가 이계적 존재라면 그를 실현할 현실적 존재로서 승계자가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삼형제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더불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권위와 힘을 승계할 예비자가 되는 것이다.

신화집단은 신화를 통하여 삶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죽음은 삶의 딜레마이고 자신의 삶을 의식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계상황이다.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죽음의 문제는 신화집단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으로서의 기술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한다.

권능으로서의 기술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천지왕본풀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당연하게 가질 만한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당연하게 가질 만한 자격 조건은 선택과 능력으로 집약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권능으로서 기술은 신앙민들에게 쉽게 수용되기 어려워진다.

선택된 존재라는 점은 주자대선생과 삼형제가 부자지간이라는 혈연으로 확인된다. 혈통 관계는 증표 확인으로 구체화된다. <초공본풀이>에서의 증표는 '고깔 귀 한 쪽과 장삼 자락 한 쪽'이다. 주년국 땅으로 내려온 주자대선생은 쌀을 떠주는 아기씨의 머리를 쓰다듬고 석 달 열흘 백일이 지나면 자신을 찾을 일이 있음을 알리고 고깔 귀 한 쪽과, 장삼 자락 한 쪽을 남기고 떠난다. 고깔 귀 한 쪽과 장삼 자락 한 쪽을 지닌 아기씨에게서 태어난 삼형제가 주자대선생의 힘을 승계할 예비자로 태어나게 된다.

삼형제에게 주어진 고난의 과정은 어렵게 통과한 과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절정에 이른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여 과거에 급제한 삼형제에게 그간의 어려움은 성취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여 과거에 급제하였다는 사실은 삼형제의 현실적 능력을 확인시켜줄 수는 있어도 죽음을 삶의 세계로 곧바로 바꾸는 능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작 죽음을 삶의 문제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적 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신화집단은 현실적 능력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

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과거 급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삼형제에게 보여준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급제를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만 한다.

삶을 넘어선 죽음의 문제는 무엇인가? 삶은 신화집단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의 세계라고 한다면 죽음은 인식 불가능한 미의식의 세계이다. 삶을 넘어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신화집단이 인식하지 못하는 미의식의 세계를 인식 가능한 세계로 바꾸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를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미의식의 세계로 떠나간 죽은 자를 인식할 수 있는 삶의 세계로 환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삼형제가 삶의 문제를 넘어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예비된 자라 할지라도 그 능력이 바로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을 삶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삼형제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능력을 획득해야 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의 획득 과정은 삼형제에게 주어진 고난의 과정이지만, 주자대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증여의 과정이다.

삼형제는 단숨에 황금산 도단땅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주며 어멍국을 ㅈ, ㅊ아가쟁 ㅎ, ㅁ인 전생팔자 그르쳐사 어멍궁을 ㅈ, ㅊ으리라. (중략) 하늘을 보고왔수다. (중략) 땅을 보고 왔수다. (중략) 올레문을 보고 왔수다 아버지 는 이말을 듣고 천지문이라 새겨서 천문을 만들어 주었다.

주자대선생이 삼형제에게 첫 번째로 증여한 것은 천지문이 새겨진 천문이다. 천문은 곳에 필요한 무구로 점치는 도구이다. 이 천문에 새겨진 천지문(天地門)은 하늘과 땅의 문 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를 증여하고 있는 셈이다.

큰아ㄷ, ㄹ랑 초감제상 받아보라 셋아ㄷ, ㄹ은 (중략) 초신맛이 받아보라. 더더구나 좋아진다. 죽은아ㄷ, ㄹ은 (중략) 시왕맛이 마련ㅎ, 라. 더더구나 좋아진다. (중략) 그런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중략) 쇠가죽을 벗겨다 북을 만들고 계속 북소리를 울리면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어머니가 입던 속옷을 가져왔다. (중략) “설운 어머님 짙은 궁에 들었건 아픈 궁으로 살려옵서” 삼형제는 두 이레 열나흘 동안 북소리를 마구 울려댔다. (중략) 결국 노가

단풍아기씨는 풀려나오게 되었다.

이는 굿하는 절차와 어머니를 살리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이라는 현실적 능력이 아닌 굿의 도구와 절차가 필요하다. 이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자대선생이 가진 능력을 이양 받는 과정이 세밀하게 드러난다. 아버지로부터 무법은 순차적으로 전수되었고, 그 신격의 직능에 따른 권한과 역할이 매겨졌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큰심방’이라는 말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무당, 경관만신, 큰만신 등의 개념으로 불린다. 큰만신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 있으나 대체적으로 굿을 온전하게 이끌고 굿법을 온전하게 터득한 인물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제주의 큰 심방이라고 불리는 안사인 심방의 말에 의하면 큰심방 조건은 집안의 오랜 내력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집안의 전통이 오랜 것은 역사적 내력이 분명하고 역사적 온축(蘊蓄) 위에서 전통적인 가치가 우러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심방 내력을 지닌 가문의 21대 손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하였으며 집안 내력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이 전통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최고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⁴⁴⁾

<초공본풀이>의 신직 해석 화소에는 초감제에서 불리는 <천지왕본풀이>와는 다르게 이야기 하나가 삽입되어 있다. 그것은 ‘유정승 따님 아기’의 화소이다.⁴⁵⁾ 보통 이러저러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기원의 설명하며 마감하는 본풀이 종결하는 방식과는 다른 점이 특이하다. 무법을 전수받은 삼형제와 이 삼형제를 대리하는 무당들이 굿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를 모두 살려낼 수 있다면 이 화소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무당이라 하더라도 모두를 살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주자대선생의 무(巫)의 권력과 기술을 승계하여 무구를 가지고 절차와 방법에 맞게 축원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유정승 따님 아기의 화소가 없었다면 실패한 무법에 대한 불신을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정승 따님 아기 화소는 굿의 주술성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았을 때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으며 아직도 본풀이에 반영되고 있다.

44) 김현선(2013), 『제주도 큰 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 굿』, 민속원, p.29.

45) 육지쪽에서는 <바리공주>가 무조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초공 삼형제가 무조신으로 그려진다. 초공본풀이가 비교적 긴 서사를 가지고 있어 구연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정승 따님아기 화소가 최초의 강신무로 마지막 서사에 삽입되고 있어 제주의 <초공본풀이>가 지닌 원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종합 정리하면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화소’는 죽음을 해결하는 무법 능력을 초공 삼형제가 이양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초공 삼형제는 무당이기에 이는 무조신의 내력담이 되는 것이고, 신앙민들은 혈통면에서나 능력면에서 남다른 권능을 가진 무사제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의 속에서 믿음을 확립하게 된다.

3. 신성 주화(呪花)의 이양

‘결합의 신화소’, ‘부친탐색의 신화소’, ‘증여와 답례의 신화소’, ‘신직 해석의 신화소’를 <이공본풀이>도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 신화소에 따라 <이공본풀이>의 서사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라도령이 원강압이와 혼인한 후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가고 (결합) 제인장자 집에서 태어난 할락궁이는 제인장자 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존재에 의문을 품고 서천꽃밭으로 아버지를 찾아간다.(부친탐색) 아버지는 할락궁이에게 꽃을 주었고, 이것으로 제인장자를 징치하고 어머니를 살려낸 다음, 꽃감관 자리를 물려받는다. (증여와 답례) 수레멜망약심꽃은 사악한 재해를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신직 해석)

<이공본풀이>를 ‘부친탐색의 신화소’를 중심으로 보면 할락궁이가 사라도령을 찾는 이야기이다. 이때 사라도령은 아버지이면서 부재자이고 할락궁이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찾는 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재인식은 필요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할락궁이가 부재자인 사라도령을 찾는 것은 할락궁이가 어떤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할락궁이가 사라도령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결합의 과정에서 드러난다. 사라도령은 원강압이와 결혼 후 서천꽃밭 꽃감관이 되어 떠난다. 문제는 서천꽃밭 꽃감관이라는 자리이다. 꽃감관은 꽃을 관장하는 자리이다. 이 서천꽃밭은 <생불할망본풀이>에서 생불할망이 하늘에서 꽃씨를 받아다 지상에 심어 만든 꽃밭이다. 하늘에서 받아왔다는 것은 꽃 자체가 어떤 권능이나 힘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생불꽃도 색깔에 따라 삶의 양상이 바뀐다고 신화집단은 말하고 있다.⁴⁶⁾ 이는 서천꽃밭이 출생과 그에 따른

46) 자료 『제주도신화』와 『제주도무속자료사진』에는 방향 및 색깔과 관련된 꽃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불도놀이에서 행해지는 <꽃타러듬>과 <꽃풀이> 내용을 참고하면 다음

길흉화복만이 아니라 웃음과 질투, 죽음과 환생에 이르는 총망라된 인간 세상과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부재한 아버지를 찾으러 서천꽃밭으로 간다는 의미는 서천꽃밭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상 그 자체, 회노애락, 길흉화복을 관리할 수 있는 권능이나 힘을 할락궁이가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꽃감관을 승계할 만한 자격을 지녀야 한다. 이 자격은 기본적으로 혈통에 의한 선택이며, 동시에 능력의 검증으로 드러난다. 할락궁이는 성장하면서 하루하루 고된 노역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신화집단 모두에게 놓여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눈물로 세수하는 하루하루였다’라는 표현으로 현실은 극대화된다. 신화집단은 이러한 현실의 반대 급부(給付)로 서천꽃밭을 상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현실 속 이상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버지는 서천꽃밭 꽃감관이었기에 아들 할락궁이는 혈통적으로 꽃감관을 수여받을 조건 첫 번째를 만족시킨다.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에 겪는 고난은 할락궁이의 능력을 시험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할락궁이는 천리둥이, 만리둥이를 따돌리고 얇은 물과 깊은 물을 건너 서천꽃밭에 당도한다. 우선 할락궁이가 천리둥이, 만리둥이를 메밀범벅 두 덩이로 따돌리는 지혜를 보여준다. 메밀 세 덩이를 가지고 천리둥이를 한 덩이로 따돌리고, 만리둥이를 또 한 덩이로 따돌리고, 자신은 또 한 덩이를 가지고 서천꽃밭에 당도한다. 이는 적절하게 메밀범벅을 사용하는 능력을 통해 서천꽃밭의 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무릎에 치는 물을 건너고, 잔등이에 치는 물을 건너고, 한참 가다 보니 목까지 치는 물이 있어 그 물을 넘어가니 서천꽃밭이 보였다고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꽃을 키우는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는 <바리데기>신화에서 바리데기가 아버지 오구대왕을 살리기 위하여 서천서역국에 약수(藥水)를 구하러 가는 장면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생명의 원천으로서 물이 표상되고 있음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화집단은 이 ‘물’이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로써 신화집단은 식물의 순환 원리, 물의 순환 원리 속에서 생명의 원천과 죽음의 원리를 발견하였던 것이며, 특히 꽃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며 신앙민들에게 현존하였다. 그러기에 무속의 세계에서 꽃은 다양한 존재로 상징화

과 같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동쪽의 푸른 꽃은 아들, 서쪽의 하얀 꽃은 딸, 북쪽의 검은 꽃은 단명, 남쪽의 붉은 꽃은 장명, 가운데 중앙의 황색 꽃은 만과출세’ 등이다.

되며, 인간의 다사다난한 삶을 결정하는 상징체임을 보여준다.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는 아버지에게서 꽃과 꽃밭을 증여받는다. 꽃은 확인 가능한 신격으로서 신체(神體)의 상징에 해당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굿 당에 장식되는 꽃들은 신화(神花)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생화가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지화(紙花)를 사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식물로 대체되기도 한다.⁴⁷⁾ 굿을 할 때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성한 굿 당에 현현한 신격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수용하려는 믿음은 강화된다.

따라서 <이공본풀이>에 드러나는 ‘부친탐색담’의 의미기능은 할락궁이가 신격을 상징하는 꽃을 이양 받았음을 확인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할락궁이가 꽃감관의 아들로서 지혜로우며, 생명의 원리를 알고 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았기에 신앙민은 그가 증여받은 꽃을 신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화집단은 신을 성의 세계에 속한 존재라고 외경시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현실의 급부(給付)로서 서천꽃밭을 상징하고 있다. 현실에서 아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생불꽃을 주고, 맞이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부정적 상황을 초래하는 삶이 지속될 때는 악심꽃을 꺾어버리는 행위를 통하여 신과 인간이 끊임없이 증여와 답례를 계속하고 있다고 신앙민은 믿었다.

47) 이수자(2007),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14집, p.428.

IV. 부친탐색담의 전승 원리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에 따르면 신화는 역사적 시간을 넘어 종교적 시간을 불러내어 성화(聖化)시키는 기능을 하며, 신과 무당과 신앙민(信仰民)은 제의 공간 안에서 유사(유사)의 법칙과 접촉의 법칙⁴⁸⁾에 따라 성(聖)의 세계를 공유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친탐색담’은 어떻게 신앙민에게 전승되는가. 그들은 왜 본풀이의 권능을 믿고 효험을 기대하는가. 제의에서 본풀이는 신의 본을 풀며, 신의 현현을 강제하는데 이것이 ‘부친탐색화소’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신앙민은 제의를 통해 보이지 않는 위대한 존재에 기대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발원한다. 그러기에 제의는 신앙민의 해원을 수용하고 어루만지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때 무당은 의례 행위를 통하여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하며, 그 속에서 본풀이를 구송한다. 여기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신앙민에게 무당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로서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만드는 확신을 주어야 하고, 신으로부터는 꼭 현현하도록 강제해야만 한다.

신과 신앙민을 이어주는 존재는 무당이다. 그들은 삶의 다양한 양상에서 제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무당은 신앙민에게 인식의 자각을 일으키는 본풀이 서사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로 제의를 바라보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이것은 성속(聖俗)의 공유를 통해 종교적 인간으로 일체화되는 순간이다. 이에 신앙민은 신의 뜻을 받들어 굿을 행한 후 ‘굿 덕을 보게 되고’,⁴⁹⁾ 이는 계속해서 굿이 존재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 준다. 이 전승과정에 ‘부친탐색화소’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의 일반신본풀이는 일정한 전승 요소를 지니며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화소가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가가 신화집단에 널리 알려지고, 변용을 거쳐 설화의 다양한 장르로 전파되는 데는 그만큼 전승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주인공인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복을 지니고 태어난 복덩이 그 자체이며, 복 있는 며느리의 덕으로 빈부의 문제는 富로 결말지어진다는 것

48)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경덕 역(1995), 『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 까치글방, p.56.

49) 홍태환(2009), 『우리 무당 굿의 세계』, 민속원, p.15에 굿을 한 후 효험을 보았을 때 흔히 ‘굿 덕을 보았다’라 한다고 하였다.

과 부녀간의 윤리적 문제를 孝로 결말짓는 점은 <삼공본풀이>가 설화의 다양한 장르로 전승되게 만드는 중요 요소이다.⁵⁰⁾ 라고 밝히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부친탐색화소가 전승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며 이를 ‘부친 탐색화소의 전승원리’라 설정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1차적 원리로 부자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강제성’이다. 둘째는 다양한 부자관계에 함의된 의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자각성’이다. 즉, 세 편의 본풀이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되는 의미를 자각하게 되면서 객관적인 서사를 개인적인 체험으로 수용한다는 원리이다. 셋째는 성속(聖俗)의 일체가 이루어지는 제의에서 신과 무당과 신앙민은 상호 호혜적으로 증여와 답례를 주고받으며 하나가 된다는 통합성의 원리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관계의 강제성, 인식의 자각성 그리고 상호 호혜적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제의에서 ‘부친 탐색화소’가 신앙민에게 수용·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관계의 강제성

제의는 의사소통의 특정한 유형이지만 종교적 행위나 현상을 넘어 인간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찾을 수 있는 소통 형식을 갖는다.⁵¹⁾ 로센블러(Eric W, Rothenbuhler)는 “제의란 진지한 삶 속에서 상징적으로 효과를 미치거나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패턴화된 행위의 자발적 연행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제의는 상징적으로 효과를 내는, 다시 말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전제가 되며, 개인적 행위가 아닌 패턴화 되고 전형화 된 행위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는 내적 행위가 아닌 타인과의 공감을 만들어내는 틀을 전제하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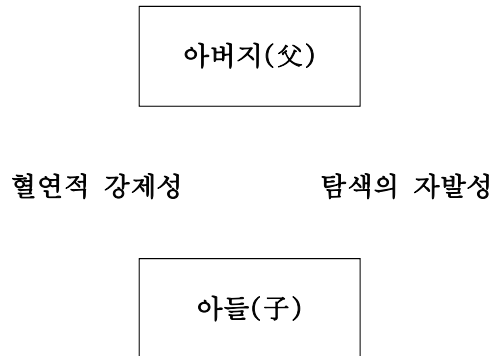
제의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 속에 신앙민에게 자발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승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인식의 틀이며, 본풀이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즉 신앙민이 본풀이의 권능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서사가 있으며, 이를 접하게 된 신앙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친탐색화소’가 그러한 전승 원리를 이끌어내는 중심화소라

50) 현승환(1993),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도문제연구회, p.48.

51) 로센블러(Eric W, Rothenbuhler, Ritual Communication-Form Everyday Conversation to Mediated Ceremony, Sage Publications, 1988, p.4. 오세경(2005), 『한국신화의 생성과 소통원리』, 한국학술정보(주), p.29에서 재인용.

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7> 1차적 전승의 원리: 관계의 강제성



위에서 보듯이 ‘부친탐색화소’에서 공감을 만들어내는 제 1차적인 틀은 ‘부(父)-자(子)’의 관계에서 온다. 그렇다면 왜 ‘부(父)-자(子)’ 관계로 설정하는 것일까? ‘부친탐색화소’의 부(父)-자(子) 설정은 관계의 강제성을 가져온다. 아버지와 아들은 선택할 수 없는 강제적인 관계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틀이다.

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의 현장 또한 선택적이기보다는 강제적 관계가 형성된다. 제의가 시작되어 그 공간과 시간이 성화되면 신앙민은 의례 속에서 종교적 인간으로서 신과 일체가 된다. 그리하여 부자관계의 강제성이 제의 참여자들 사이의 강제성으로 전환된다. 다시 말하면, 제의에서 나타나는 의미작용은 자연적 선택이 아닌 강제적인 것이며, 의사소통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강제성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강제적이라는 것은 물리적 강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강제성을 의미한다.

부(父)-자(子)관계의 설정을 통하여 신과 신앙민은 자연스럽게 공감의 범칙으로 하나가 된다. 여기서 신과 무당의 관계 또한 강제적으로 제한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당이 되는 길은 크게 세습무와 강신무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신어미나 신아버가 전제된다. 세습무인 경우는 조상의 무업을 물려받는 것이다. 이때 자(子)로 선택되는 본인은 무당의 업을 피하고 싶어도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신병을 앓거나,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험을 가지고 있어 피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강신무인 경우는 내림굿을 받고 신의 자손으로 선택되어 자신의 몸 안에 몸주신을 모시게 된다. 이때 내림굿을 하여 무법으로 이끌어주는 무당을 신어머니로 모시며 관계 맺게 된다.⁵²⁾ 이처럼 신과 신

52) 주강현(1997), 『우리문화의 수수께끼2』, 한겨레출판, p.151.

양민, 무당과 신앙민은 부(父)-자(子)관계의 강제성처럼 제의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강제성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더욱 확장하여 생각해보면 이것은 제의의 상황을 누구나 수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부(父)-자(子) 관계는 인간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선택 사항이 아니다. 물론 누구나 수용하도록 하는 관계의 자발성은 부(父)-자(子) 관계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모(母)-녀(女) 관계, 모(母)-자(子) 관계, 부(父)-녀(女) 관계에서도 올 수 있다. 하지만 인류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힘을 바탕으로 하는 권위의 승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힘의 상징이며 아들 또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된다는 점에서 힘의 승계 과정에서 부(父)-자(子) 관계가 자연스럽게 전제된다. ‘부친탐색화소’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힘을 바탕으로 하는 신적 능력이나 권위를 탐색하였음을 말하며, 그것의 승계는 당연히 그것을 예비한 존재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관계는 제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형식성을 부여하게 되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관념에서 왕위의 교체는 자연력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에 의하면 신적인 왕의 상태와 공동체의 상태는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왕의 기운이 쇠퇴하여 공동체가 쇠퇴하는 과국을 막기 위하여 왕이 인간신으로서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를 죽여 신적인 생명을 후계자에게 계승시켜 공동체의 기운이 갱신되도록 하였다.⁵³⁾ 이러한 일은 인간사에서 충분히 발견되었다. 실제로 왕권의 교체, 세대교체, 가장의 교체 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신화집단은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아버지는 천지왕이고 아들은 소별왕 대별왕이다. 천지왕이 가진 권위나 힘을 소별왕 대별왕이 전수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동시에 소별왕 대별왕이 가진 힘을 물려준 존재인 천지왕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며 동시에 지속된다.

<초공본풀이>에서 아버지는 황금산 도단땅에 사는 주자대선생이고, 아들은 본맹두·신맹두·삼맹두로 삼형제이다. 주자대선생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힘을 삼형제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이들이 부(父)-자(子) 관계라는 1차적 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형제는 아버지로부터 무법을 전수받아 지상에서 실행함으로써 아버지의 권

53)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경덕 역, 앞의 책, p.48.

능과 법을 유지하도록 하며 그 존엄을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한다.

<이공본풀이>의 아버지는 사라도령이고 아들은 신산만산할락궁이이다. 사라도령이 가지고 있는 꽃을 할락궁이에게 주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이들이 부(父)-자(子) 관계라는 1차적인 틀로 엮여있기 때문이다. 꽃을 받은 아들 할락궁이는 지상에서 제인장자의 악을 징치하고 어머니를 살려낸다. 이로써 아버지에게 수여 받은 꽃의 힘을 현존시키는 존재로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구실을 한다.

세 편에 나타난 부(父)-자(子) 관계는 아버지의 권위와 힘이 아들에게 승계되는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친탐색화소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친탐색담’은 기본적으로 혈연적 관계인 부(父)-자(子)의 1차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의 강제성에서 공감미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인식의 자각성(自覺性)

인식의 자각성(自覺性)이란 표층적 의미가 심층적 의미로 확대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전용되는 것을 주체가 깨닫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인식작용이다. 소통과정에서 표층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의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발신된 기호 체계에 심층적 의미를 실어 보내게 되면 수신과정에서 표층적 의미가 1차적으로 표착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심층적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표층적 의미만으로는 비논리와 비문법이 발생함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수신자에게 잠재되어 있던 배경지식과 연결되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단골무’라는 기호체계가 ‘단골 손님을 갖는 무당’이라는 1차적 의미에서 ‘단골>단굴>단군’이라는 어원으로 확장해보면 단군신화의 ‘단군’은 지금의 무당을 뜻하던 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제의가 신과 무당 그리고 신앙민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당이나 신앙민 스스로가 그리는 신을 자각하거나 개인적 경험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고향에서의 관계 설정은 우선 신을 우위로 하며, 아버지의 권능을 전제로 한다. 물론 고향에서 화자인 무당은 청중인 신앙민과는 다른 위치에 놓인다. 왜냐하면 신앙민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무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차적인 강제성과 일방적인 형식성만으로는 신의 현현을 경험할 수는 없다. 신화의 인식과정에서 신에 대한 자각이나 유사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수용자인 신앙민은 신의 권위나 힘을 내재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풀이는 인간의 인식 작용을 확장하도록 구성되며, 부친탐색화소에 드러난 사건으로서의 서사는 신앙민의 인식을 자각하도록 이끌어내는 기능을 한다.

신화에서 자각성을 만들어내는 장치는 인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은유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은유는 기본적으로 인식론적 환유를 바탕으로 형성되거나 정서적 환유를 통해 형성된다.⁵⁴⁾ 이는 부친탐색화소에서 드러나는 1차적 관계인 부(父)-자(子)가 다른 어떤 의미로 감정적 이성적으로 확대·전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신화는 특정 시기 특정 집단의 시간과 공간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풀이 서사에 드러난 의미를 특정한 부자관계로 규정하고 인식론적 환유나 정서적 환유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화 텍스트가 가지는 기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식론적 환유나 정서적 환유도 결국은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해석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은유관계는 기호가 가지는 백과사전적 정보를 통해 산출된다. 이런 측면에서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부(父), 자(子), 부(父)-자(子)가 가지는 은유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父)의 측면에서 은유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천지왕, 주자대선생, 사라도령이 가진 백과사전적 정보가 필요하다.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부는 ‘천지왕’이다. 천지왕은 이름 자체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왕이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백과사전적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쉽게 표현해서 하늘과 땅에 관한 권위와 힘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이다.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주자대선생’의 백과사전적 정보는 ‘주자’와 ‘대선생’의 백과사전적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주자’는 중국 남송의 유학자로 주자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다. ‘대선생’은 뛰어나거나 위대한 인물을 통칭한다. 이렇게 보면 ‘주자’라는 대선생과 같은 권위를 가진 존재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신화가 신화집단의 현실과 이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아버지는 현실의 학문적 권위와 이상의 종교적 권위를 동시에 가진 인물로 그려지며 자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부, 사라도령의 백과사전적 정보는 ‘사라’와 ‘도령’이라는 기호

54) 오세정(2007), 「신화의 의미작용과 제의화의 원리」, 『실천민속학연구』 제10, 실천민속학회, p.295.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령이 가지는 백과사전적 정보는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반면 ‘사라’의 백과사전적 정보는 검색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도령의 백과사전적 정보를 검색해보면 도령은 남자, 총각, 방울, 지노귀새남곳에서 굿문을 세워놓고 하는 굿, 승지 벼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의미의 결합이 생겨나겠지만 여기서는 총각과 승지 벼슬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총각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속의 신앙민들이 <이공본풀이>의 아버지 사라도령을 인간적이며 현실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각을 대접하여 도령이라고 부르는 일은 예부터 친숙한 명명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확장하면 승지 벼슬에 해당하는 ‘도령(都令)’이라는 의미도 중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라도령의 신직은 꽃을 관리 감독하는 벼슬아치, 즉 꽃감관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라의 백과사전적 정보를 검색해 보면 ‘사라’는 불교 용어인 ‘사라수’의 유입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라는 산스크리트의 살라(sala)에서 나온 말이며 ‘단단한 나무’라는 뜻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속에서 열반에 들었는데 동서남북에 이 나무가 두 그루씩 서 있었으므로 사라쌍수라고 하며, 부처님이 열반에 들자 그 중 한 나무씩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인도에서는 이 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여기고 있으며 주요 산림식물의 하나이다. 이러한 불교 용어가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차용되면서 주인공의 이름이 되었다고 조심스레 추론해볼 수 있다.⁵⁵⁾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 사라도령에 해당하는 주인공은 이공본풀이(사라도령), 안락국태자전(사라수대왕), 안락국전(사라수대왕), 악양국왕자노래(대왕님), 신선세턴님청배(신아수대왕), 기림사사적(사라수대왕)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본토와 제주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을 전제한 추론이며, <이공본풀이>에서는 불교식 이름을 수용하면서 신성성과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변용하여 ‘사라도령’이라 부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자(子)가 가지는 백과사전적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의 자는 <천지왕본풀이>의 소별왕, 대별왕, <초공본풀이>의 삼형제, 그리고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다.

소별왕 대별왕은 소와 별과 왕이라는 정보가 합해지면서 백과사전적 정보를 형성하고 있다. 소와 대는 크다와 작다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별의 의미가 문제이다. 별을 성

55) 김창일(2003),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개와 공간 의미 고찰』, 『한국무속학』, 제6집, 한국무속학회, p.160.

(星)으로 보느냐 별(別)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별을 성(星)으로 보게 되면 소별왕과 대별왕은 모두 하늘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승왕과 저승왕이라 불리는 의미와 맞지 않다. 상대적으로 작거나 짧은 이승과 관련된 힘과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보기 위해서는 성(星)의 의미가 아니라 별(別)이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별왕은 현실에 있어서 나타나는 작은 법을 관장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고 대별왕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큰 법의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공본풀이>의 삼형제는 순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새롭게 백과사전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공본풀이>의 활락궁이는 백과사전적 정보를 검색할 필요가 있다. 활락궁이는 활락과 궁 그리고 이라는 기호의 결합으로 보인다. 활락은 한라산을 지칭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궁이에서 ‘궁’은 신전이나 신전의 의미를 지닌 장소의 의미를 지니고, 이는 그 ‘궁을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활락궁이는 한라산신제를 주관하는 존재라는 정보로 읽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부와 자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은유적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부-자는 혈연적 관계라는 1차적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재자이면서 탐색자이다. 은유적 관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부재한 부를 찾는 탐색의 이유는 살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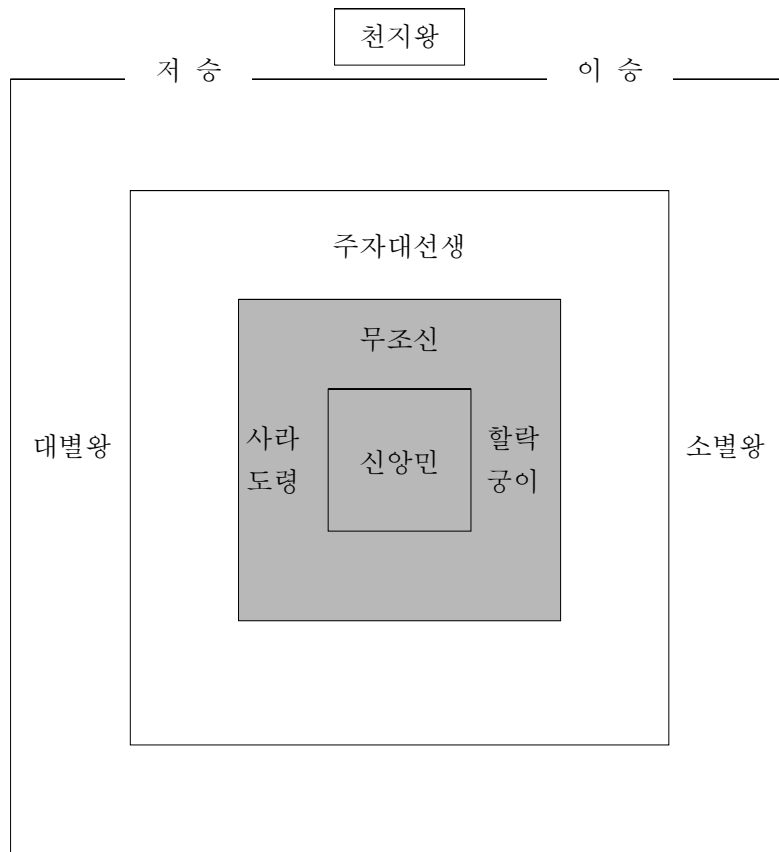
탐색자는 부재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 이는 탐색자인 자가 무엇인가를 결핍하고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찾아서 결핍된 무엇인가를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소별왕 대별왕이 천지왕으로부터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법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이는 <초공본풀이>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초공본풀이>에서의 삼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어머니를 살리는 기술 즉,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이는 <이공본풀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공본풀이>에서 활락궁이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머니를 죽음으로부터 환생시킬 수 있는 꽃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역으로 부가 부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부가 가진 이 무엇인가를 증여하기 위한 전제가 들어 있다. 아울러 부재한 부를 찾는 과정을 통해 찾고 있는 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다. 즉 증여를 예비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는 찾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따라서 부의 부재 이유는 증여를 전제로 하는 고난의 의미로 읽혀지게 되고 자의 입장에서 찾는 이유는 수

혜를 전제로 고난극복을 보여줌으로써 능력을 검증받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친탐색 화소’를 통하여 신앙민은 다양한 부자관계와 부친탐색의 과정을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본풀이와 제의의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직면하게 하는 화소로 기능하며 이 자각을 통하여 신앙민은 더욱 굳건히 제의 속에 결합되는 것이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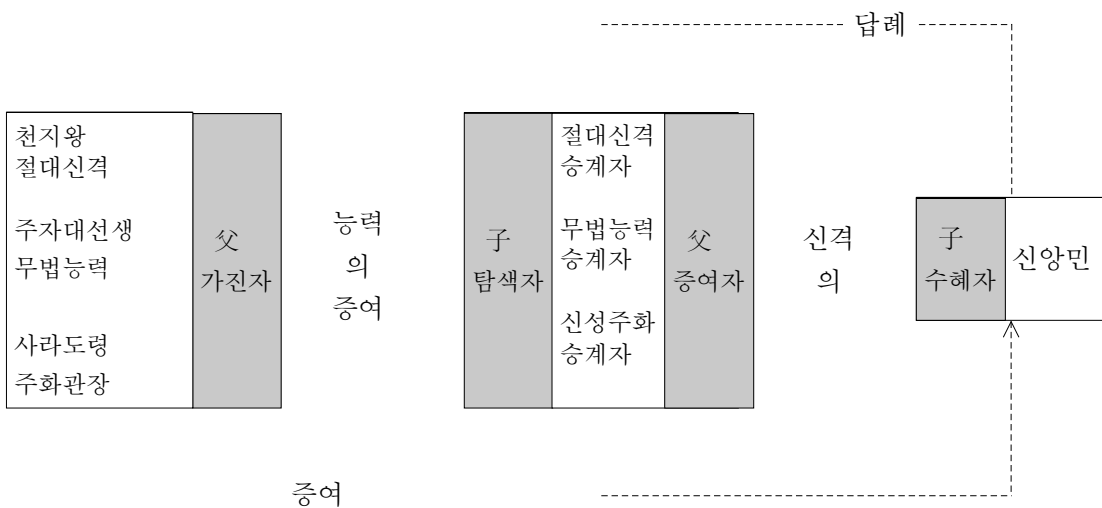
<표8> 2차적 전승의 원리: 인식의 자각성



3. 상호호혜적 통합성

상호 호혜적 통합성이란 본풀이와 제의의 내·외적인 면에서 일어나는 조응(照應)을 말한다. 즉, ‘부친탐색화소’에 나타난 부재자와 탐색자의 관계가 제의 상황에서 신과 신앙민의 증여와 답례로 전환됨을 말한다. 이처럼 본풀이는 제의에서 신의 증여와 신앙민의 답례로 성화(聖化)되면서 끊임없이 신화집단의 생활 속에서 그 목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9> 3차적 전승의 원리: 상호 호혜적 통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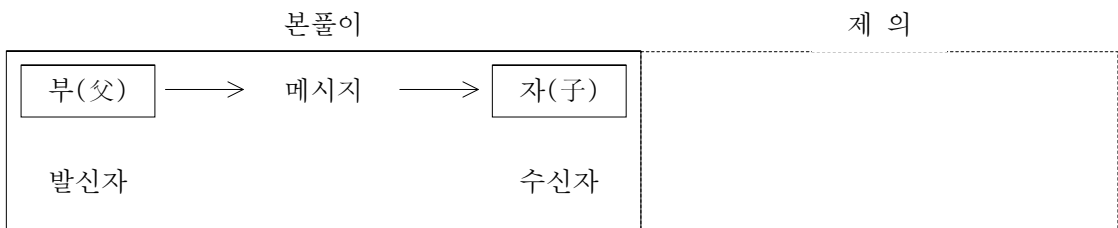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에 따르면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그 본래의 사용가치를 넘어서 있는 것을 주는 것이며, 동시에 경제적 교환 논리 저편에 호혜성의 원리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증여로 이전되는 물건은 특별한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낸다. 증여된 것은 그것이 애초에 지닌 평범한 유용성에 따라 평가되지 않는다. 그것은 증여자의 영적 본질을 담고 있다. 부친탐색화소는 1차적으로 관계의 강제성에서 출발하여, 2차적 관계인 인식의 자각성을 통해 의미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의 강제성이 사라지고 인식의 자각성만이 남는 것은 아니다. 관계의 강제성과 인식의 자각성이 모두 포함된 상태로 신과 무당 그리고 신앙민의 사이에 일체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상호 호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당은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증여자가 되

고, 수용자인 신앙민은 신을 향한 신앙심으로 그 답례를 하기에 이르러 동시적 상황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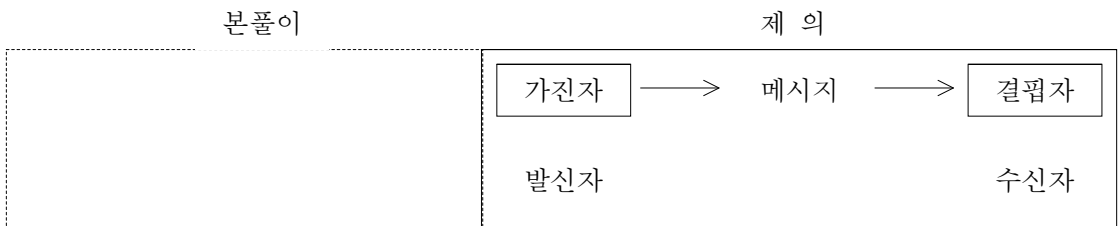
여기서 부친탐색화소가 본풀이 과정의 메시지라는 점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풀이는 제의 과정 속에서 구송되며, 일정한 틀로써 제의를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수신자와 발신자를 연결하는 의사소통의 내용물이기도 하다. 제의에서 행해지는 여러 행위나 언술은 개인적인 경험과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집단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반영하게 된다. 즉 갑작스런 죽음, 잦은 질병, 의문의 실종 등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여기 내 앞에 닥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찾아올 문제로 죽음이며, 질병이며, 이별이며 삶의 고난이기도 하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1차 원리인 부자 관계는 신과 신앙민의 관계로 현실적 제의 상황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0> 종합적 전승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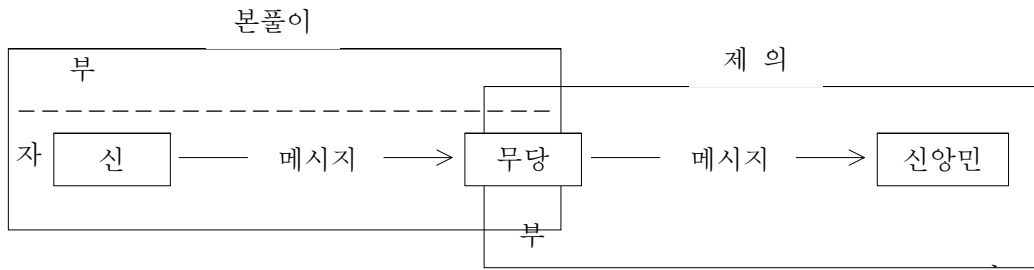
1차적 상황



2차적 상황



3차적 상황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초월적 존재로서의 천지왕은 신앙민(信仰民)이 찾고 있는 아버지의 원초적인 상으로 절대 신격을 향한 신앙민의 탐색을 드러낸다. 앞서 부자관계로 얽힌 부친탐색화소가 강제적이고 자발성을 띠다고 전제하였는데 이로써 절대 신격에 대한 신앙민들의 믿음은 강제적이고 자발적이었다고 해석 가능해진다. 이로써 <천지왕본풀이>가 창세 신화의 자리에서 구송되어지는 이유도 해명 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서 천지왕은 ‘숨은 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앙민은 하늘의 존재와 인간을 연결해 줄 무당을 필요로 하게 된다.

<초공본풀이>에서 신앙민은 황금산 도단 땅 주자대선생을 아버지로 탐색하게 된다. 그의 존재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그로부터 무법을 전수 받은 무조신 삼형제를 통하여 신앙민들은 무조신의 아버지를 체험하게 된다. 이에 신앙민은 부친탐색의 결과 생사운행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무당을 신격으로 대응하기에 이른다.

<이공본풀이>에서 신앙민은 인간적 존재에서 신격을 얻고 좌정한 아버지를 탐색하고 있다. 현존하는 아버지는 나와 다르지 않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인간적 존재이다. 그러한 현실 속 모순 앞에서 신앙민은 현실을 부정하고 이계의 존재로 이동한 아버지에게서 신격이 발현되길 바랐다. 그 구체적 모습은 아마도 부모의 죽음 뒤에 형성되는 신앙민의 아버지 상이었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이는 로센블러가 신앙민은 신과 아버지를 동일화하는 태도⁵⁶⁾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여기서 본풀이가 개인을 넘어서 집단화 되고 전형화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본풀이 서사 단락으로 구송되는 부친탐색화소는 제의의 기능 속에서 신과 신앙

56) 오세정(2006), 『한국신화의 생성과 소통원리』, 한국학술정보, p.30.

민의 관계, 즉 부(父)로서의 신(神)과 자(子)로서의 신앙민(信仰民)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요컨대 아들이 부친을 찾듯이 신앙민은 신을 찾고 있음이다. 이것으로 하여 제주도 열두 거리 큰 곳의 상위 제차(祭次)에 중심축으로서 부친탐색화소가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이며 서사 전개와 핵심 화소로서 기능하는 이유이다. 또한 가장 상위 신격인 <천지왕본풀이>에서 <이공본풀이>까지 반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반복적으로 신앙민들에게 발현되지 않는다면 신념 체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친탐색화소의 강제성, 자각성, 통합성의 과정이 내면화되고 신념화되지 않으면 제의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행위 체계에서도 흔히 생략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부친탐색화소’의 반복을 통한 상보적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 무속 신화인 ‘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담의 구조와 의미를 통하여 기능과 전승원리를 밝히는데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는 부친탐색화소가 서사 문학의 한 원형으로서 나라와 가문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이를 계승하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특히 신화는 유래와 근원을 알려주는 이야기로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시조(始祖), 시원(始原)을 설명하고 있기에 아버지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원에 해당하는 아버지는 부재하였으며, 여기서 신화집단은 부친탐색을 시도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 무속 신화인 본풀이 세 편에 뚜렷하게 ‘부친탐색화소’가 드러남에 주목하였다. 가장 상위의 절대 신격을 노래하는 <천지왕본풀이>, 무조신의 내력을 구송하는 <초공본풀이>, 주화관장신의 삶을 말하는 <이공본풀이>가 그것이다. 각 편에 나타난 부친 탐색을 중심으로 본풀이 서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네 개의 공통 신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부친탐색화소가 신화 서사에서 중요한 구조로서 작용하고 있다면 제의의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 바, 의미적으로는 <천지왕본풀이>의 절대 신격의 승계에서 출발하여 <초공본풀이>의 무법 능력의 이양, <이공본풀이>의 신성 주화의 이양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신앙민은 제의 과정에서도 ‘부친탐색화소’가 일으키는 의미 기능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전승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승원리가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부자관계 설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수용으로 ‘관계의 강제성’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각 편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구체적 표상 및 그 관계를 둘러싼 은유 작용의 해석을 거쳐 자신의 경험과 유사함을 깨달으면서 인식을 확장하며 그 의미를 수용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의 자각성’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신과 무당과 신앙민이 부친탐색화소를 중심으로 증여와 답례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상호 호혜적 원리에 따라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합성’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요약하면서 결론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에는 네 가지 신화소가 공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결합의 신화소’, ‘부친탐색 신화소’, ‘증여와 답례 신화소’, ‘신직

해석 신화소'가 그것이다. 이들 신화소가 어떤 내용적 특성을 드러내며 각 편의 본풀이에서 그 전형성과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결합의 신화소는 아버지의 출현 양상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천지왕은 하늘의 존재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러기에 결합 또한 일방적이다. 주자대선생은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존재로서 권위 또한 혼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자지맹왕아기씨와 결합에서는 허락을 득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사라도령과 원강암이는 구덕혼사로 결합을 이루게 되는 현실적 존재들로서 그 권위 또한 인간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종합하면 결합의 과정은 일방적 선택에서 상호 교환적 선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은 부친탐색의 신화소로서 탐색 과정의 고통 유무에 따라 서사적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앞서 제시된 결합의 양상이 탐색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 소별왕의 아버지 탐색은 '아비 없는 호래자식'이라는 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로써 그들에게 아버지 부재는 정신적 결핍으로 이어졌고, 박씨를 타고 하늘에 올라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그 과정은 고통 없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초공본풀이>에서 초공 삼형제의 아버지 탐색은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다. 이는 아들들에게는 육체적 결핍 그 자체였기에 시급하고 중대하였다. 외할아버지를 거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어머니의 삶이 아들에게 투영된다는 측면을 적용해보면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의 탐색 동기는 주체적 자각이다. 열다섯이 되자 아버지 부재로 인한 사회적 결핍을 인식하게 되었다. 서천꽃밭에 이르는 과정은 고난이 반복되는 구조이며, 합혈과 열레빗 맞추기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이로써 아버지의 신격에 따라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강도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음은 증여와 답례의 신화소로서 신직의 중복 여부에 따라 증여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천지왕은 이승과 저승을 증여하는데 이는 하늘과는 다른 세상으로 신격은 독립이기에 '순수증여'라 말할 수 있다. 주자대선생은 삼형제에게 무법(巫法)을 증여한다. 아버지는 이계의 사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들은 인간 세상의 사제자로 역할 지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신직 중복 양상은 혼합적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증여’라 할 수 있다. 사라도령은 주화(呪花)를 증여한다. 사라도령과 활락궁이는 인간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에 서천꽃밭의 꽃에 관한 소유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즉, 적절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써야만 하고, 통과의를 거친 자에게만 증여되고 있다는 면, 신직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환’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천지왕의 순수증여, 주자대선생의 증여, 사라도령의 교환 과정으로 위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은 신직 해석 신화소로서 뮌토스적인 이야기 요소들을 로고스적인 논리적 법칙으로 묶어주는 부분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이승법 저승법의 시원, <초공본풀이>에서는 무법의 시원, <이공본풀이>에서는 수레멜망악심꽃의 시원으로 해석되며 종합 마무리 되고 있다.

각 편 본풀이에 드러난 신화소 분석을 기반으로 이들이 지닌 의미 기능을 고찰하였다. 우선,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절대 신직이 승계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권력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를 찾기 위한 과정이 아들의 부친탐색으로 구체화된다.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주재하는 절대 권력의 신격을 지녔으므로 그 아들 또한 그러한 신격의 확보가 예비 된다. 이것은 주로 두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데 하나는 혈통의 인지이며, 다른 하나는 능력의 확인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박씨를 타고 오르는 과정이 신분인지소로 드러나며, 이승과 저승의 법을 확립하는 부분이 능력의 확인이다. 이때 단순한 긍정과 부정, 선과 악의 대립 쌍으로서 이승과 저승의 설정은 아니며 그에 적합한 인물을 구별한다는 의미의 능력 확인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이승은 소별왕에게 적합하였고, 저승은 대별왕에게 적합하였다. 따라서 그에 따른 법의 확립은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성격으로 신화집단은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은 <초공본풀이>에서 무법 능력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주자대선생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죽음의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 힘과 권위를 계승할 존재는 신맹두, 본맹두, 삼맹두 삼형제이다. 이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당이 되기로 한다. 아버지는 이들에게 천지문이라 새겨진 「산판」을 만들어주고, 곳에서 맡게 될 신직을 따로따로 수여하며 무법을 전수해준다. 다음은 무악기를 만들게 하며, 어머니를 살려 내는 구체적인 곳의 방법을 알려준다. 그들은 어머니를 살려 내어 곳 당에 좌정토록

한 후 무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굿의 절차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써 아버지의 무법을 체계적으로 전수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공본풀이>에서 무조신이 지닌 권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로써 신화집단은 <초공본풀이> 부친탐색화소를 통하여 본풀이를 구송하고 있는 무당에게 그 능력이 계승되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이공본풀이>에서 신성 주화가 이양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할락궁이는 부친탐색 결과 주화(呪花)를 증여받게 된다. 서천꽃밭에 피어있는 주화의 양상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웃음웃을꽃, 싸움싸울꽃, 수레멜망약심꽃, 환생꽃 등 현실의 회노애락이 꽃 속에 투영되고 있다. 신화집단은 할락궁이가 관장하는 주화가 현실의 급부(給付)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의식하였고, 그것을 구체화된 신체(神體)로 받아들였다.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성한 굿 당에 현현한 이들 주화(呪花)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믿었고, 그를 몸소 체험하면서 성과속의 일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세 편의 본풀이 드러난 부친탐색화소는 절대 신격의 이양, 무법 능력 이양, 신성 주화 이양 등을 위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신앙민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그 경험을 오래도록 보존하면서 신앙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미 기능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부친탐색화소’의 의미 기능이 제의에서 어떻게 신앙민에게 수용 전승되고 있는지를 관계의 강제성, 인식의 자각성, 상호 호혜적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관계의 강제성은 부(父)-자(子) 관계에서 온다. 이는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틀이다. 이 틀은 신화텍스트에서 신과 신앙민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만들어 공감의 법칙을 만들어내며, 본풀이 구송자인 무당과 청중인 신앙민은 이를 자발적이며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이것은 역으로 제의의 상황을 누구나 수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인식의 자각성은 텍스트의 기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은유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은유는 기본적으로 인식론적 환유를 바탕으로 형성되거나 정서적 환유를 통해 형성된다. <초공본풀이>에서 아버지 주자대선생은 ‘주자라는 대선생’의 의미를 통하여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의미 확장되고 있다. <이공본풀이>에서 ‘사라도령’은 은유적 관계를 통하

여 불교적 색채를 지닌 ‘사라수대왕’의 영향으로 해석하여 결국에는 신성한 존재로 의미 확장되고 있다.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할락궁이는 한라산신제를 주관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상호 호혜적 통합성은 신화텍스트가 소통되는 내외적 상황에서 일어난다. 텍스트 내적으로 살펴보면 부(父)와 자(子)가 증여와 수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목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또한 텍스트 외적으로는 신과 무당 그리고 신앙민 사이에 신은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성의 의지를 증여하며 이에 무당과 신앙민은 깊은 신앙심으로 답례를 하며 상호간에 끊임없이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제주 무속 신화에 나타난 ‘부친탐색담’은 내적 의미 기능을 넘어 외적 행위 체계로 제의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부친탐색화소’가 신화 전승의 중심축으로서 상위 신격의 제의에서 구송되는 이유도 밝혀질 수 있었다. 즉, <천지왕본풀이>의 절대 신격에서 <초공본풀이>의 사제자 무조신으로, <이공본풀이>의 인간이면서 신으로 좌정한 인간신에 이르기까지 위계적 질서를 아버지의 상(像)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신앙민은 구체적 현실에서 부재한 아버지를 탐색할 수 있었던 제의의 접촉을 통하여 생로병사에 관한 신념체계를 확립하게 되고, 계속하여 신앙심으로 행위 체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부친탐색담’의 제 기능을 종합적으로 밝히기 위하여서는 ‘건국신화’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친탐색화소’에 관한 논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화집단에게 증여와 답례의 구체적 사례가 역사적 시간 속에 구현된 사례들을 건국신화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가진 논의의 범위가 한계를 지녔음을 아쉬워하며 본토의 신화와 비교하고, 건국신화 연구로 확장하는 일은 다음의 과제로 미루어 두며 이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료

- 현용준(1996), 『제주도신화』개정판, 서문당.
현용준(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개정판, 문원각.

논문

- 강정식(1987), 「제주 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논문.
김기호(2002), 「신화의 이상탄생 화소와 서사의 두 경향」, 『한민족어문학』 제 40집, 한민족어문학회.
김동규(2012), 「한국 무속의 다양성-학적담론과 무당의 정체성 형성 사이의 고리효과」, 『종교연구』 제 66집, 한국종교학회.
김명희(2012), 「무(巫)의 꽃밭에 나타난 ‘위대한 어머니’인 ‘원강암」, 『비교민속학』 제47집, 한국비교민속학회.
김문태(2004), 「건국신화와 축제문화의 원류, 신화주인공의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 44집, 한민족어문학회.
김선자(2011), 「중국남부 소수민족 신화에 나타난 꽃의 여신(화파花婆)과 민속, 그리고 서천꽃밭」, 『비교민속학』 제45집, 비교민속학회.
김영남(2001), 「신화연구에 나타난 여성신의 창출구조」, 『코키토』 70, 한국구비문학회.
김영희(2012), 「한국 구전서사 속 부친살해 모티프의 역방향 변용 탐색」, 『고전문학연구』 제41집, 고전문학연구학회.
김은정(2004), 「승복과 무복으로 착용되는 장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2호, 대한가정학회.
김창일(2003),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개와 공간 의미 고찰」, 『한국무속학』, 제6집, 한국무속학회.
김현선(2003), 「<베포도엮침>,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비교민속학회.
김현선·시지은(2009), 「무속의 일생의례와 세계관」, 『비교민속학』 39집, 비교민속학회.
김현자(2012), 「마르셀모스의 증여론」, 『인문논총』 제68집, 서울대학교종교학과.
김혜미(2013), 「설화 <하룻밤 인연의 아버지 찾은 아들>과 애니메이션 <니코>

- 에 나타난 아버지 부재와 자녀의 정체성 탐색 양상」, 『문학치료연구』 제27집, 한국문학치료학회.
- 노영근(2000), 「이야기문학에 나타난 가족탐색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봉순(2005), 「심방의 입무의례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논문.
- 박정호(2009),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증여의 사회학적 본질과 기능 그리고 호혜성의 원리에 대하여」, 『문화와 사회』 7권.
- 시지은(2012), 「상쇠 흥박씨와 무당 명두 비교」, 『한국무속학』 제24집, 한국무속학회.
- 신연우(2009),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변모」, 『한국무속학』 19, 한국무속학회.
- _____(2010), 「<초공본풀이>의 초월공간과 중심 공간」, 『탐라문화』 3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2012), 「<초공본풀이>의 비속함과 성스러움」, 『고전문학연구』 제42집, 한국고전문학회.
- _____(2013), 「제주도신화 고통의 문제 <초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37집, 고전문학회.
- 신월균(1988), 「<초공본풀이>의 구조고찰」, 『국어국문학』 100집, 국어국문학회.
- _____(1995), 「무속신화에서의 聖俗인식」, 『비교민속학』 12집, 비교민속학회
- 신태수(2007), 「창세신화의 변이와 신화사적 위상」, 『우리말글』 39집, 우리말글학회.
- 심상교(2003), 「동해안 별신굿 지화조사 연구 1」, 『한국무속학』 6집, 한국무속학회.
- 양종송(1995), 「무당 문화의 전통: 강신무당 전승고」, 『비교민속학』, 12집, 비교민속학회.
- _____(2001), 「 무당 귀물연구-삼국유사의 삼부인과 무당의 거울, 칼, 방울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2』, 국립민속박물관.
- 양종송·최진아(2002), 「서울곳의 신화(神花)」, 『한국무속학』 4, 한국무속학회.
- 염원희(2010), 「무속의례에 있어 신과의 의사소통이 갖는 의미 연구」, 『어문논집』 제 49집.
- 오세영(2006), 「한국신화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 『한민족어문학』 제49집, 한민족어문학회.
- 오세정(2007), 「신화의 의미작용과 제의화의 원리」, 『실천민속학연구』 제10, 실천민속학회.
- 이강엽(2013), 「성과 속의 경계, 『삼국유사』의 ‘신발 한 짝」, 『고전문학연구』

- 구』 제43집, 고전문학회.
- 이강옥(2007), 「야담의 보은담 유형과 계층 관계」, 『어문학』 제97집, 한국어문학회.
- 이병욱(2008), 「불교성소(聖所)관념의 전개」, 『종교연구』 제52집, 한국종교학회.
- 이수자(1993),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제10집, 제주도연구회.
- _____ (1997), 「한국 무속 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제16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 _____ (2001),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제12집, 한국구비문학회.
- _____ (2009),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친탐색 원형」, 『구비문학연구』 제28집, 구비문학회.
- 이수자·조희웅(1996), 「고대서사문학에 나타난 「신분인지소(身分認知素)」에 대한 연구, 질의」, 『고전문학연구』 3권, 한국고전문학회.
- 이영배(2011), 「혼인습속의 고유성과 무(巫)의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국어문학』 제50집, 국어문학회.
- 정진희(2006), 「제주도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일상’의 특성과 경험의 신화화(神話化) 양상」, 『국문학연구』 제14호, 국문학회.
- _____ (2002), 「제주 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제7호, 국문학회.
- 정하영(2010), 「심부담의 연원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고전연구』 2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 _____ (2002), 「고소설에 나타난 모성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_____ (1980), 「신화의 기능변이와 문학적 재현」,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 조재현(2008), 「정해경전」에 나타나는 모친탐색의 양상과 의미연구」, 『어문연구』 제36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주종연(1981), 「한국문학의 한 원형에 대한 고찰」, 『어문학』 1,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최원오(2005), 「무속신화, 그 속에 반영된 가족의 일상적 삶과 의미」, 『국문학연구』 제13호, 국문학회.
- 최종성(1996), 「무속의례의 구조이해를 위한 신화-제의연구」, 『종교학연구』 제42집,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 최진아(2005), 「무구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무속학』 제10집, 한국무속학회.

- 허남준(2008),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제148호, 국어국문학회.
- _____ (2011),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 고대, 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탐라문화』 제38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 현승환(1992), 「내 복에 산다게 설화연구」,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3),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도문제연구회.
- _____ (1997), 「생불꽃연구」, 『백록어문』 제13집, 백록어문학회.
- 현원필(1999), 「문학교과에서의 서사무가 지도연구-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태한(2002), 「무가 전승의 변화-문서와 연행의 차이」, 『우리말어문연구』 제19집, 우리어문학회.
- _____ (2002), 「무가 전승의 주제」, 『한국민속학』 35, 한국민속학회.
- _____ (2011), 「무속신화에 나타난 부부 관계의 한 양상과 의미」, 『남도민속연구』 제22집, 남도민속학회.
- _____ (2013),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연행 원리 연구」, 『한국문화연구』 제37집, 고전문학회.

논저 및 단행본

- 김석하(1973), 『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 김주희(1991), 『문화인류학의 이해』,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김현선 외(2013), 『제주도 큰 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 곳』, 민속원.
- 김현선(1994),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 박종성(1999), 『한국창세서사시연구』, 태학사.
- 오세정(2006), 『한국신화의 생성과 소통원리』, 한국학술정보.
- 이수자(2004), 『큰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 장덕순(1986),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 장덕순(1995), 『한국설화문학연구』, 박이정.
- 장주근(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 조동일(1977),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 최길성(1994), 『한국무속의 이해』, 예진사.
- 허남준 외(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10),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13), 『고순안 심방 본풀이』, 보고서.
- 현용준(2005), 『제주도문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 홍태한(2009), 『우리 무당국의 세계』, 민속원.

외국도서

마르셀 모스, 이상률 역· 류정아 해제(2002), 『증여론』,한길사.

메르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1983) 『성과 속』, 학민사.

_____ , 이은봉 역(2011), 『신화와 현실』, 한길사.

_____ , 이재실 역(1998), 『이미지와 상징』, 까치.

스티스 톱슨, 윤승준, 최광식 공역(1992), 『설화학 원론』, 계명문화사.

우치다 다치루, 이경덕 역(2010),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갈라파고스.

움베르토 에코, 김광현 역(2000), 『기호』, 열린책들.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경덕 역(1995), 『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 까치글방.

<Abstract>

The Function of Finding Father and the Principle of Transmission In Jeju's Goddess Myths

Kang, Sun-hee

A major in Korea Languag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hw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defining functions and principles of succession that characterize tales of finding one's father such as <Cheonjiwangbonpuli>, <Chogongbonpuli> and <Igongbonpuli>. Until a recent date, as an archetype of epic literature, tales of finding one's father have focused on meaning researches to establish the heritage of a nation or a family and to succeed these aspects. A myth is a story that notifies the origin. Therefore, existence of a father that corresponds to a progenitor and the root is to have significance.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absence of a father occurs in reality. Consequently, The group found in myths attempts to find one's father.

Tales of finding one's father are noticeably found in three series of <Bonpuli> which are Jeju island's shaman myths. Three series consist of <Cheonjiwangbonpuli> glorifying divinity, <Chogongbonpuli> reciting the origin of shamanic god and <Igongbonpuli> which describes the life of the god in charge of flowers. As we

analyze the descriptive structure of <Bonpuli> in terms of finding one's father, we could extract four common mythemes such as 'mythmes of union', 'mythmes of finding one's father', 'mythmes of gift and acknowledgement' and 'mythmes of faith'.

Mythems of union is characterized differently depending on existence of a father. Chunjiwang, the god with omniscience, exerts powerful authority. Therefore, the aspect of union is unilateral. 'Saradoreung' and 'Wongwangami' joins in virtue of marriage based on praying for virtue. His authority could be interpreted as being limited to practical dimension.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mythemes of finding one's father are represented with diverse features as the level of agony varies. The reason that Daebeulwang and sohbeulwang searched for their father is that they suffered psychological deficiency. They finally met their father having gone up to the sky with the help of a seed of gourd. That process seems to be proceeded easily without any risk. Chogong three brothers searching for their father is due to the death of their mother. This event which is considered as the reason of their physical deficiency has caused serious problems. Although their meeting father passing their grand father is accomplished easily, aspects of agony can be extracted in terms of a mother's life being projected into her sons. Halakgungi's motivation to search is self-consciousness of the subject. Absence of his father leads to cognition of social deficiency. Thus, he searched for his father. The way to Seocheon garden feathers repetition of agony, and then blood checking and solving a puzzle confirms his status. Therefore, it is proven that father's divinity determines intensity of agony.

In sequence, in mythemes of gift and acknowledgement, aspect of a gift 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whether there is an overlap of divine position. Since Cheonjiwang presents the real world and the hell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heaven, there is no overlap of divine job, and this could be regarded as a pure gift. Sage Juja presents shamanic wisdom to three brothers. Their father is a priest in the spiritual world and his sons became priests on the earth. Thus, an overlap of divine position appears to be compositional and this aspect could be regarded as a gift. Saradoreung presents flower for praying. Both Saradoreung and Halakgungi take the same divine

position as a flower sentinel, which is an overlap. Also, as conditional aspect that one having undergone a rite of passage is to be seen noticeably, this could be described as a kind of interchange.

Thirdly, there is mythemes of faith that arrange mythical discourses with logical rules. This aspect is well represented and interpreted in <Cheonjiwangbonpuli> showing the origin of law which constitutes division between the earth and the afterlife, <Chogongbonpuli> showing the origin of law concerning spiritual affairs, and <Igonpuli> featured with the origin of the evil flower which is a metaphor that presents supernatural causes of all the negative affairs.

If tales of finding one's father that have been discussed function as the primary structure in terms of mythical epic, these stories could be interpreted as a crucial leading factor in ritual matters. These factors are well represented in <Cheonjiwangbonpuli> featuring transfer of divinity, <Chogongbonpuli> showing transfer of spiritual powers, and <Igonpuli> showing transfer of the divine flower.

As a result, religious people take in and succeed the meaning of these tales spontaneously while in ritual ceremonies. Three major principles are considered to function in regard to spiritual or ritual matters. Firstly, there is 'compulsion of relation'. A father and son relationship is compulsory but not selective. Therefore, one who takes part in ritual affairs accept situation of <Bonpuli> spontaneously. Secondly, there is self-awareness of cognition. Since people accept metaphors surrounding a father and son relationship and concrete representation of a father and a son, they face similarities between the stories and their life. This leads to both extension of cognition and finally awareness of intensive meaning. Thirdly, there is mutual synthesis. Religious people, the Supreme Being, and priests start from a father and son relationship and proceed toward the circulation of gift and acknowledgement. The Supreme Being performs giving responding to a prayer of a religious person, and a religious person gives his or her faith in return. Through this process, ritual ceremony and 'Bonpuli' are accepted and succeeded mutually and this results in the synthesis.

Through this research, we've observed that tales of finding one's father in 'Bonpuli'

have functioned as the center axis to justify the status of the divinity and transfer of authority. In addition, functions which ritual affairs have been discussed. In conclus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way 'Bonpuli' in Jeju maintains up to a recent date its significance has been revealed.